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제1771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초강세 ₩… 1100원線도 깨졌다

〈원·달러 환율〉

경제지표 호조로 원·달러 年低點 붕괴… 1년 2개월만 최저

"당국 하락 속도조절 가능성… 1090원서 저지선 구축될 듯"

원·달러 환율이 나흘연속 하락하며 1100원마저 내줬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화만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를 보이는 모습이다. 국내 경제 호조와 북한 리스크 완화, 중국과의 해빙무드 등 호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면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도 원·달러 하락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그동안 연저점으로 강력한 저지선으로 인식됐던 1110.5원을 하향 돌파하면서부터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역외시장 참여자들도 손절성 달러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저점이 1189.7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100원 하향돌파 후 1190원 부근에서 저지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2원 내린 1097.2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기록으로는 지난해 9월 29일 기록한 1091.6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역외환율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096.7원과 1097.2원 사이에서 최종 호가돼 전장 현물환 종가보다 4.4원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과 신흥국을 통틀어 가장 강한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1일 이후부터 이달 3일까지 원화는 2.8% 강세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2.0%)과 인도(1.3%), 중국(0.4%)보다도 강한 것이다. 일본은 오히려 1.3% 약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은행권의 한 외환딜러는 "역외투자자들이 매도물량을 내놓으면서 연저점이 깨졌고 낙폭을 키웠다. 원화 강세가 확실시되면서 원·달러 상승에 베팅했던 물량에 대한 손절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실험 등 빅 이벤트가 없는 한 원·달러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도 "밤사이 뉴욕시장에서 달러가 반등했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였음에도 유독 원화만 강세다. 경제지표 호조 등이 부각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연저점이 깨졌고 1100원도 하향돌파했다. 지난해 연저점(1189.7원) 부근인 1090원에서 지지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경계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속도 조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비트코인 '눈독' 들인 증권사 금융당국 '실눈' 뜨니 손사래

대신證 가상화폐 예수금 서비스… 1년도 안돼 중단

가상화폐 사업에 관심을 보이거나,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증권사들이 최근 일제히 손을 떼고 있다. 가상화폐의 한계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최근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코인원과 손잡고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선보인 '비트코인 예수금 서비스'가 실시 1년도 채 안 된 9월 말부로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주식 예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비트코인의 간편한 입금 및 환전을 통해 실제 증권거래에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대신증권과 코인원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비트코인 예수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언했으나, 현재는 별다른 후속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점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상품 개발,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던 신한금융투자도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사실상 멈춘 상태다. '디지털금융팀'이라는 별도 TF팀까지 신설하고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검토했던 키움증권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문의하자 "관련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등 입장을 달리했다.

증권업계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대해 관심을 접는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개념 정의 및 규제 강화 움직임 △가격 적격성 논란 △증권업과 낮은 관련성 △해킹 등 가상화폐 보안 문제 증가 등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새 수장으로 선임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공신력과 화폐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책 초점은 불법 거래와 피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규제 강화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차민영 기자 blooming@

연이은 地震에 '화들짝' 보험가입 까다로워졌다

손보사, 조건 강화… 금감원 지도 나서

작년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보험 가입이 더 까다로워지고 보상 한도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작년 9월 경주에서 5.8 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손해율 상승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화재보험 등 지진 특약 가입 시 지진 취약 정도를 나타내는 건물구조 급수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의 범위도 넓히고, 가입금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즉, 경주 지진 이후 특약 가입이 가능한 건물구조 급수를 기존 3급(컨테이너 등)에서 1급(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높였다. 또 경남, 경북 등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 한해 보험금 수령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가입 신청이 몰렸지만,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 사전에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인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화재보험의 지진 특약이 유일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가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진 특약 이외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있긴 하지만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가, 어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종합보험 가입은 대부분 기업이다.

특히 경주 지진 당시에는 보험사들이 지진 특약 가입을 막아 금융감독원에서 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손해율 악화를 우려해 지진 특약 가입을 제한하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수험서를 다시 살 줄이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16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수험생들이 수험서를 찾고 있다. ▶관련기사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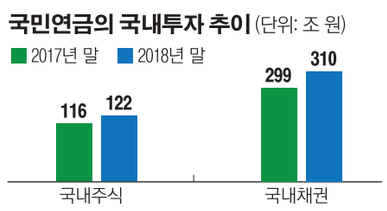
고이란 기자 photoeran@

수익률 급한 국민연금, 국내 投資 비중 줄인다

내년 주식투자액 올해보다 55% 축소

'분산투자 원칙'… 해외 비중은 늘려

文 정부 투자방침과 달라 논란 예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주식, 채권 분야의 국내 투자 규모는 물론 비중도 축소키로 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정책으로 삼고 있어 국민연금 국내 투자 축소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 기관은 국내주식 부문 투자금을 2017년 말 116조3120억 원에서 2018년 말 122조5761억 원으로 6조2641억 원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금은 2016년 말 102조3591억 원에서 올해 말 기준 대비 13조952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국내주식 투자 증액규모는 올해보다 55%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는 규모뿐 아니라, 전체 투자금 대비 비중도 줄어든다. 2017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금 중 국내주식 비중은 19.2%를 차지하지만, 2018년 말에는 18.7%로 0.6%포인트 감소한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를 줄이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주식 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다. 6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와 분산투자 원칙을 고려하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점도 국내주식 투자금을 줄이는 배경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예상 추이를 보면 2044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수익률이 예상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때 국내주식 비중이 높으면 대규모 매도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채권 투자 비중도 줄인다.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 비중은 올해 말 299조1226억 원에서 내년 말 310조3828억 원으로 11조2602억 원 늘어난다. 금액 규모는 늘지만 전체 투자자산 대비 비중은 49.5%에서 47.2%로 2.3%포인트가 감소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올해 말 15.4%(92조9771억 원)에서 2018년 17.7%(115조9998억 원)으로 2.3%포인트 늘어난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등 대체투자 부문 역시 2017년 11.9%(71조9393억 원)에서 2018년 12.5%(81조9118억 원)으로 0.6%포인트 증가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정다운 기자 gamja@

'世代交替·實績主義 원칙' 무게 삼성 후속인사 다음주 마무리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 임원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금융·건설·제조 계열사 사장단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세대교체와 실적주의란 양대 원칙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후속 조직개편 및 보직 인사 확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내주 중 삼성물산을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단행된다. ▶관련기사 3·9면

최대 관심사는 건설·제조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의 유임 여부다. 60대인 최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꼽히지만, 세대교체 분위기에 따라 퇴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룹 계열사에서 주요 보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세대교체 흐름을 따를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업계에선 최 사장 후임으로 김명수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김 부사장이 예상대로 삼성물산 신임대표로 임명될 경우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 계열사들에서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창수(62) 삼성생명 사장, 안민수(61) 삼성화재 사장, 원기찬(59) 삼성카드 사장 등은 지난해 말 사장단 인사를 건너뛰면서 자동 유임된 상태다. 윤용암(61) 삼성증권 사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다만, 금융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보다 승진이 3~4년 늦었던 데다, 인력 풀이 크지 않아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사퇴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금융 계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임추위가 사장을 추천한 뒤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돈 들고 밤샘 줄서기… 투기판 된 '청약잔여분' ▶10


"FTA 밀실행정 멈춰야"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15


동남아에 아마존이 있다? 필리핀의 보석 '보홀' ▶17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內需 회복에 도움…중장기 輸出엔 惡영향

年低點 깨진 원·달러 환율

北리스크 小康에 外人 유입·경제 성장세 영향 추가하락 가능성
경상수지 흑자 부담에 당국 외환시장 개입 전망…미세조정 수준
이달 韓銀 금리인상 화두…"원·달러 환율 연말 1100원 밑돌 듯"



16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일보다 10.9원 하락한 달러당 1101.4원이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30일(1101.3원) 이후 가장 낮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하향 돌파(원화 강세)하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원화강세를 촉발할 요인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하락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봤다. 그동안 하락 속도가 빨랐던 데다 외환당국도 속도 조절을 위한 개입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北 리스크 소강+경기개선+한·加 통화 스와프 체결에 미국 세제 개편안 불확실 =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데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축통화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의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 핵실험으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국가신용도 위협 등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 수출 호조 등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원화 강세의 좀 더 근본적 요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외 리스크로 언급됐던 북한 리스크가 잠잠하고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문제도 해결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성장률 상향 조정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도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당국 미세조정에 그칠 것 =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쳤다.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인데다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돌파하면서 일부 투기세력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관측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미세조정에 나서겠지만 대놓고 개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이상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기세력이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경상흑자 비중을 낮춰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도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도 "10월 이후 원화 강세 폭이 크다. 당국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12월 미 연준 금리인상보다는 11월 한국은행 금리인상 가능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연말 1100원을 밑돌 것"이라고 전했다.

원화강세는 당장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글로벌 교역 사이클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등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엔화가 최근 원화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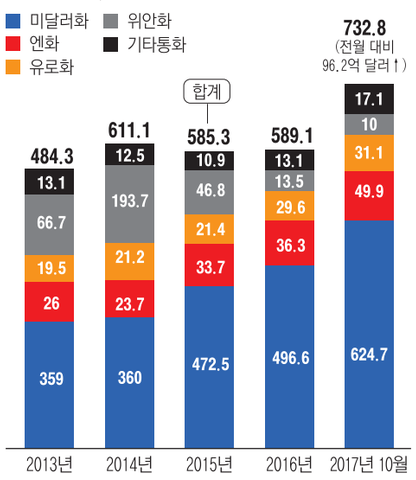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교역량이 호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원화강세가 수출에 당장 타격을 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엔화나 유로화, 여타 신흥국 통화 대비 원화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중장기화한다면 수출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정식 교수도 "시차를 두고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또 일본 엔화가 최근 113~114엔까지 오르는 등 원화와 다른 흐름이다. 수출 둔화에 두 배의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금융위기 당시도 이런 흐름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환율 떨어지자…외화예금 732.8억 달러 '역대 최고치'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단위 : 억 달러, 기말 기준)



*기타통화 : 영국파운드화, 호주달러화 등

韓銀 "전월比 증가폭 96.2억 달러 신기록"…달러화 예금 잔액 624.7억 '최대'

거주자외화예금이 7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잠해진데다 이 여파로 원·달러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과 미국 간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거주자외화예금은 두 달 연속 감소했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3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직전 최고치는 올 3월 말 기록한 705억4000만 달러였다.

전월 대비 증가폭도 96억2000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두 달간의 감소폭 54억50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주체별로는 기업이 84억7000만 달러 증가한 606억4000만 달러를, 개인이 11억5000만 달러 늘어난 126억4000만 달러를 보였다.

거주자외화예금이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한은의 외환보유액에 빗대 제2의 외환보유액 내지 민간 외환보유액이라고도 불린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 증가폭이 컸다. 달러화예금은 78억2000만 달러 증가한 624억7000만 달러로 증가폭과 잔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521억2000만 달러로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개인도 103억5000만 달러로 7월 말(105억2000만 달러) 이후 석달 만에 가장 많았다.

엔화예금도 9억7000만 달러 증가한 49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도 6억8000만 달러 늘어난 3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위안화는 3000만 달러 줄어든 10억 달러에 머물렀다.

원·달러 환율도 10월 말 현재 1120.4원을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25원(2.2%) 하락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데다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입된 영향을 받았다.

감충식 한은 자본이동분석팀장은 "8~9월 북한 관련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50억 달러 이상 감소했던 거주자외화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25원가량 떨어지면서 그간 대기했던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베네수엘라 '國家不渡' 原油·債券시장은 '패닉'

글로벌 신평사 S&P '선택적 디폴트' 강등
하루 200만 배럴 원유 생산량 차질 우려
국채 가격 20% 폭락해 해외 채권단 타격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 혼란에 허덕여온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지자 글로벌 원유와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만기가 돌아온 외채 이자 지급에 실패해 결국 이번 주 초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당했다.

댄 예르긴 IHS마르키트 부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는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며 "이런 생산량을 잃게 되면 국제 원유시장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 OPEC 산유국들이 이미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위기까지 겹치면서 원유시장이 매우 빡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로 2%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불안에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채무 재조정이 일어나면 채권자들이 베네수엘라 자산을 압류하거나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할 수 있어 산유량 감소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유정보업체 베이커휴즈에 따르면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가동 중인 시추전은 39개로, 2003년 이후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국제 채권시장도 베네수엘라 충격에 흔들리고 있다. 내년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25억 달러어치의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은 전날 20% 이상 폭락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채권단들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CNN머니는 수십 개에 달하는 미국 뮤추얼펀드와 대형은행들이 베네수엘라 채권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외채 규모는 현재 600억 달러가 넘지만 외환보유고는 96억 달러에 불과하다. 러시아가 이날 30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에 합의했지만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와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채와 국영 석유업체 페데베사(PDVSA)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CNN머니는 이들 기관투자자가 수백만 미국인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리카르도 하우스만 하버드대학 교수는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유지되는 한 채권자들도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농업,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aT 50년 새로운 100년을 약속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5-4-3' 原則으로 10년 젊어진 삼성… '이재용 時代' 성큼

〈50대 사장·부사장, 40대 임원, 30대 현장 책임자〉

삼성전자 221명 임원 승진

신임 부사장 27명 평균나이 54.1세
40대도 2명 '미래 CEO' 후보군 확대
최대실적 반도체 99명 '성과주의' 확인
2년 빨리 전무 승진 제임스 엘리엇
삼성전자 첫 여성 펠로우 장은주 등
女 7명·외국인 8명 '조직 다양성' 확보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에 대한 사장단 및 임원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재용 시대를 여는 '세대교체'로 '5-4-3' 원칙이 적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0대는 사장과 부사장, 40대는 임원, 30대는 젊은 현장 책임자로 구성해 삼성을 10년 젊어지게 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부사장 승진자를 대폭 늘려 미래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확대했고, 성과주의에 따라 DS부문은 승진자를 대거 배출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전날 승진한 부사장 27명의 평균 나이는 54.1세다. 이명진(59) IR 그룹장이 최고령 승진자였고, 40대 부사장도 2명 탄생했다. 55세 이하는 13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DS, CE, IM 등 3대 사업부문장을 60대에서 50대로 교체했고, 사장 승진자 7명 전원을 50대의 인물로 채우는 인사를 발표했다. 사장 승진자의 평균 나이는 55.9세다. 가장 젊은 사람은 시스템LSI 사업부장인 강인엽 사장으로 54세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부문장에 김기남 사장(59)이, CE부문장에 VD(영상 디스플레이)사업부 김현석(56) 사장이, IM부문장에 무선사업부 고동진(56)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부문장 평균 나이는 57세로, 전임자의 평균(63.3세)과 비교하면 6.3세나 젊어졌다.

60대 사장단 전원 퇴진에 이어 이번 임원 인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세대교체 의지를 보여준 것은 40대 부사장 승진이다.

이돈태(49) 디자인경영센터 부센터장(부사장)과 안덕호(49) DS부문 법무지원팀장(부사장) 등 2명이 40대 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돈태 부사장은 24년 전인 지난 1993년 삼성의 대학생 디자이너 육성 프로그램 1기로 참여했던 인연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쳐온 이 부사장은 40대 젊은 감각으로 디자인 전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호 부사장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이다. 37살이던 2005년 삼성 법무실 담당임원으로 입사해 40대에 부사장이 됐다. 전날 인사를 단행한 삼성전기 역시 세대교체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승진자 14명 중 10명이 40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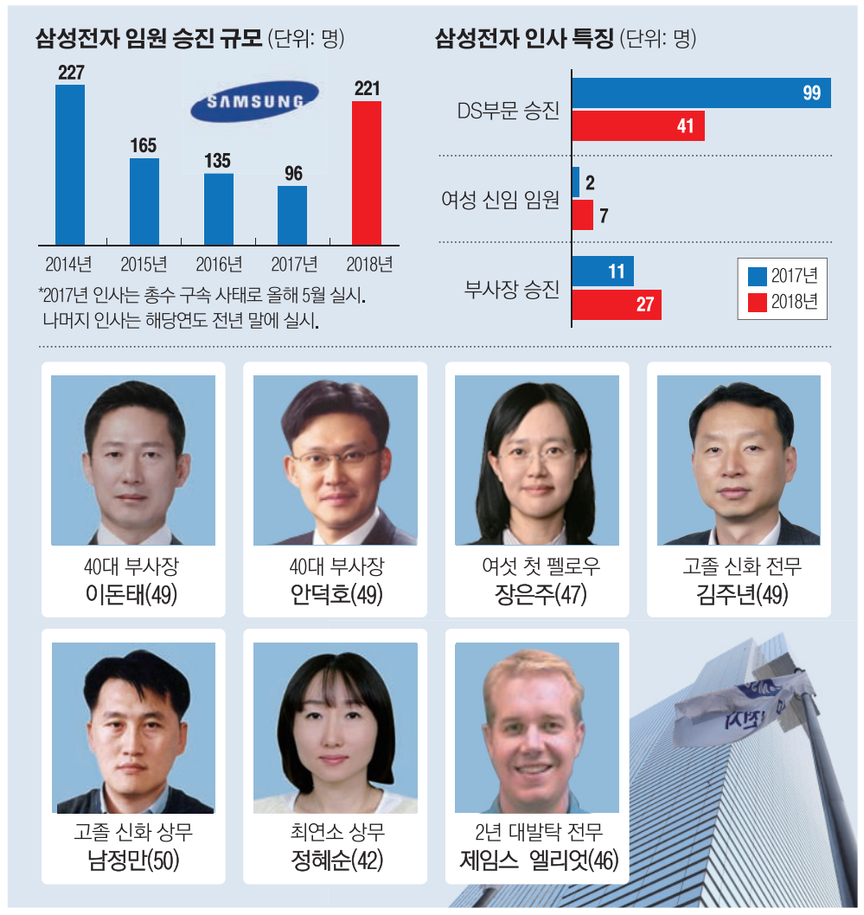
세대교체와 더불어 성과주의 원칙도 확연히 드러났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벌어들이는 DS부문에서 전체 승진자의 45%(99명)가 나왔다. 앞서 사장 승진자도 7명 중 4명이 DS 부문 소속이었다.

승진자 가운데 여성은 7명, 외국인은 8명이었다. 삼성전자는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2세인 정혜순 무선사업부 프레임워크 개발그룹 상무는 최연소 임원 승진자가 됐다. DS부문의 제임스 엘리엇 미주총괄 메모리마케팅담당은 승진 연한보다 2년 빠르게 전무가 됐다. 삼성전자 사내에서 고졸 신화로 불리는 김주년 전무와 남정만 상무도 승진 명단에 들었다.

부사장 승진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부사장 승진자는 모두 27명으로 2015년 18명, 2016년 12명, 2017년 11명 등과 비교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도 꾸준히 세대교체를 이어갈 수 있는 '인재 풀(Pool)'을 강화하고, 내부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재확인했고, 발탁 승진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부사장 승진자의 확대는 미래 CEO 후보군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삼성 첫 여성 펠로우인 장은주 펠로우도 주목받았다. 장 펠로우는 "기술자로서는 최고 명예인 삼성 펠로우가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영광스럽다"며 "퀀텀닷이 앞으로도 삼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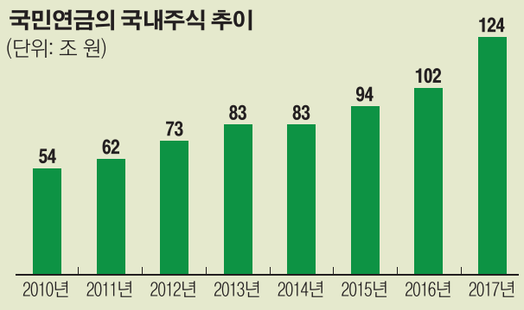
송영록 기자 syr@



국민연금 해외로 눈돌린 이유는

국민연금의 자산별 적립금 추이 및 전체자산 중 비중변화
(단위: 조 원, %P)

	2018년 말	비중	비중변화
국내주식	122	18.7	-0.6
해외주식	115	17.7	2.3
국내채권	310	47.2	-2.2
해외채권	26	4.0	0.0
대체투자	81	12.5	0.6
합계	657	100.0	



수익률 부진·운용역량 한계 부딪혀

8월 말 기준 국내주식 수익률, BM지수 대비 1.28% 불과
"해외서도 국내처럼 대형株 위주 투자… 단기성과 그칠 것
코스닥 상장사·벤처 투자처 등 집중발굴 장기투자 나서야"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요인으로 수익률 부진과 더불어 운용 역량의 한계가 꼽힌다. 단기성과 평가 위주의 국내 상황에서 위험을 감내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해외로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은 20.02%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올해 유가증권시장이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벤치마크(BM)인 코스피지수 대비 수익률로 환산하면 1.28%에 불과하다. 지난해 BM대비 수익률 역시 0.4%에 그쳤고 2014~2016년 3년간은 -1.22%로 BM을 밑돌았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부진에 처한 것은 운용상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는 300개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을 위주로 국내 시가총액의 7%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 것이다.

전날(16일) 열린 포용금융연구회의 '한국금융 바로 세우기' 제3차 포럼에서도 국민연금의 현재 기금운용 상황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됐다. 포용금융연구회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경제부문 싱크탱크를 담당했던 학계·업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캠프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주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회장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고문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감사를 맡았던 노금선 이오스파트너즈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600조 원 기금은 2040~2050년까지 회수할 필요가 없어 30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높은 위험을 감내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해외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운용자금 비중을 늘리는 국민연금의 '공격적 투자'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수익률 제고라는 목적으로 단순히 해외주식·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장기투자로 유명한 메리츠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는 "해외에서 애플 같은 대형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장기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것 역시 단기성과를 위한 투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 상장사나 벤처회사 중 투자처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진정한 장기투자라는 것이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중 코스피에 약 119조1000억 원(97.4%)을 투자한 데 비해 코스닥 투자 금액은 2조 6000억 원(2.6%)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2의 벤처붐 조성 목적으로 국민연금 자금 등을 동원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고안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대장주들마저 유가증권으로 이탈한 코스닥시장에 국민연금이 투자했을 때 연기금의 안정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연금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위원회와 국회 등이 모두 단기실적을 보는 분위기부터 쇄신해야 한다"며 "3년짜리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물론 운용역들의 성과 체계 등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所得稅·法人稅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상임위 통과 안돼도 본회의 오를 듯

예산정책처, '요건 충족' 법안에 포함…국회의장이 지정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국회의장실은 17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받은 45건의 법안을 공개했다. 또 신청이 먼저 들어온 24건을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도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이란 내년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예정처는 24건 법안 중 15건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15건 안에는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소득세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하는 게 골자다. 두 개정안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내놓은 안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고, 예정처가 '요건 충족'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이들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이 사실상 커졌다. 예산 부수 법안이 돼 본회의에 올라가면 출석 과반의 찬성표만 확보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우회로'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여야 견해차가 큰 만큼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 야당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세균 의장 역시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13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정부의 청부입법 등은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며 "각 정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한 것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은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부수법안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조보경 기자 jojo@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광온(왼쪽) 소위원장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의원에게 듣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진 등 자연재해도 안보문제 중 하나 포항지역 특별교부세 100억 지원돼야"



"포항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100억 원이다. 40억 원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없다. 절차에 속도를 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포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지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두 번째 강진으로 물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는 포항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다. 지원금은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시설물 복구와 주택 파손으로 이재민이 된 주민들의 구호에 우선 집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책 법안을 다수 발의한 장 의원은 "안보라 하면 국방 문제만을 생각하는데 지진 등 자연재해 문제도 대한민국 안보의 하나다"라며 "세월호 이후 국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주 지진, 포항 지진까지 터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같이 지진은 피할 수 없지만 노력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며 지진 대책 법안을 발의한 계기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민간 건축물에도 정부 예산을 쏟아 내진 설계, 내진 보강하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실제로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고급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지만 일반 개인 집이나 저층 건물들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포항에 다녀왔을 때도 가장 큰 피해를 본 아파트는 35년 된 5층짜리 아파트였다"고 강조했다. 또 "필로티 구조 같은 건물도 내진 설계를 통해 지진에 잘 버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재난대책 매뉴얼이 뒤죽박죽인 것을 꼬집었다. 그는 "기상청에서는 지진이 나면 '차에 앉아 있으라'고 명시돼 있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차에서 내리라'고 돼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며 "차에서 내리는 것이 맞으며, 경주 지진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지난해 국감 때 이러한 현안을 고쳤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 소득공제 확대 법안도 있다

의료·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문화·도서구입비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를 이어가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 확대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다.

먼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의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20%로 올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해 2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72만1000원 중 교육비가 32만 원(11.8%)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육비 공제 확대는 비싼 대학등록금 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박 의원의 법안대로라도 연 865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윤호중 의원은 여기에 의료비 세액공제율 역시 현 15%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도 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율을 모두 20%로 올리면 연 6069억 원의 세수 축소 타격을 감당해야 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경우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20%로 적용하되 공제한도를 두지 않도록 했다.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를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액공제 해주는 법안도 다수 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법안이 범위가 제일 넓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연극·영화·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을 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의 안은 과표 88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간행물 구매에 쓴 비용만 15% 세액공제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안은 근로자의 도서구입비에 소득공제를 각각 해주도록 했다. 독서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사치재로 보는 반대 의견이 맞선다.

자녀를 둔 근로자에겐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연령 상한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법안도 솔깃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은 과표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선 현재 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액(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및 출생·입양공제 포함)의 10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끔 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靑, '전병헌 사퇴' 타격…이젠 '홍종학 임명' 고심

강행 땐 野 3당 거센 반발 불보듯

청와대는 16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격 사퇴로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국회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당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강행 시 야 3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시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국회 인준 문제도 남아 있는 데다 예산 정국에서 자칫 주도권을 잃고 야 3당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 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는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힌 점에서도 이 같은 살얼음판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전 수석의 자진사퇴가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와 가교 역할을 하던 전 수석의 사퇴는 뼈아프다. 내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와 가교역할을 하던 전 수석의 부재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성장동력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당분간 정무수석실 선임 비서관인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한병도 정무비서관 대행체제로 극복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과 조율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

신동민 기자 lawsdm@

굿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다시, 봄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

아동 1000명 중 275명이 학대를 경험하지만
발견되는 아이는 단 1명…

274명의 아이들은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 아동권리 실태조사 (2016,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GYEONGGI 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
김준수 의경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국민감시단'을 검색하세요.

국민감시단 검색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는 굿네이버스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국민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입니다.

주최 : 굿네이버스
후원 : 경찰청 www.police.go.kr /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부터 임원까지 '낙하산 天國, 가스公'

신임 사장에 정승일 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내정
현재 비상임이사 25명 중 12명이 업무 연관성 없는 '報恩 인사'
작년 부채비율 325%·순손실 6736억…노조 "부적격 인사 거부"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가스공사. 그 이면에는 사장부터 임원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이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이번 사장 선임에 대해 "가스노동자 입장에서 (정 전 실장이) 산업부 관료 시절 민간 직수입 활성화, 민영화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기업을 죽이려는 사람을 사장으로 받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노조 측은 "최근 가스공사 경영 간부들이 오로지 자리 보존과 면피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경영 간부 중 국민과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권과 산업부의 부당한 정책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인사는 없다"면서 산업부 관료 출신이 사장이 되면 산업부의 부당한 지배 개입과 과도한 업무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67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낙하산 보은 인사'들이 투입돼 부실화하고 있는 공기업의 혁신 기회를 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5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낙하산 인사였다. 대다수가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모 비상임이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및 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해군 사령관을 지낸 서모 비상임이사는 뉴라이트안보연합 공동대표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채용된 5명 중 3명이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정당이나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 정모 상임감사의 경우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으며, 서모 상임감사는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활동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상임감사와 이명박 정부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이모 상임감사는 노조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뿐만 아니라 제3군단장 출신인 이모 상임감사도 MB계로 분류되는 인사로, 상임감사 전원이 전문성보다는 보은 인사의 성격이 강했다.

가스공사노조 측은 "가스 산업의 공공성과 조직의 통합을 저해하는 부적격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公共기관 채용비리 신고 146건 330곳 전수조사 이달말 완료

지방·유관단체는 연말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접수된 신고가 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행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총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애초 계획대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1개) 조사는 행안부, 권익위 주관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권익위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이달 15일까지 146건에 이른다.

조 차관보는 "점검 과정에서 내부 제보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對)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접수된 신고,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 기관 점검 시 중점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기재부가 후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공개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30년이 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평가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서 경영평가단장인 박순애 교수는 "평가단의 공정성 보완을 위해 평가단 구성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주무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평가단 독립성과 공공기관 자율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상철 교수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평가위원에 대한 즉각 퇴출(one strike out) 제도를 제안했다.

오철호 교수는 "기관 사업지표는 주무부처, 기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중심형 지표로 설계하되 기관평가와 중복되는 기관장 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통화스와프는 外換위기 대응 안전판 역할
실제 사용은 美·中 한 번씩…모두 두 번뿐

6개 기축통화국 간 스와프도
아직까지 사용한 사례 없어

한국과 캐나다 간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실제 효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6개 기축통화국들이 이 같은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를 맺고 외환을 사용한 바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6개 기축통화국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설화된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를 2013년 말 구축했다. 금융 불안 시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가치 안정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6개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화, 유럽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캐나다 달러화, 일본 엔화 등이다.

2013년 기축통화국들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실제 사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경제력과 재정 안전성이 높은 나라들이고, 금융위기 등 유사시 활용 가능한 강력한 외환부문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와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정부는 기축통화국 간 통화스와프 네트워크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게 됐다고 평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실제 외환을 사용한 사례는 미국과 중국 두 건이다. 두 건 모두 한도와 기한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와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양자 통화스와프	규모 (달러 환산 시)	만기
한 – 캐나다 (원↔캐나다 달러)	스와프 규모 무제한	무기한
한 – 중국 (원↔위안)	**560억** (3,600억 위안)	2020. 10. 10
한 – UAE (원↔디르함)	**54억** (200억 디르함)	2016. 10. 12 (연장 협의 중)
한 – 말레이시아 (원↔링깃)	**47억** (150억 링깃)	2020. 1. 24
한 – 호주 (원↔호주달러)	**77억** (100억 호주달러)	2020. 2. 7
한 – 인도네시아 (원↔루피아)	**100억** (115조 루피아)	2017. 3. 5
다자 통화스와프	규모 (달러 환산 시)	만기
CMIM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달러↔자국통화)	**384억**	없음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후 163억 달러를 5차례에 걸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2009년 말까지 전액 상환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2010년 종료됐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560억 달러(약 36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 전후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도 워낙 쓰지를 않다 보니 '좀 쓰자'고 얘기가 나와 조금씩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과의 무역거래 시 결제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쓰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수치는 비공개"라고 말을 아꼈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미 FTA 공청회 내달 1일 다시 연다

"행정절차법상 하자" 지적에…개정협상도 내년으로 연기 가능성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요건인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2차 공청회를 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면 이달 26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10일 개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시작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당시 산업부는 공청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 단체의 시위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또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를 2차 공청회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1차 공청회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들의 토론 시간이 부족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법한 공청회라고 볼 수 없다"라며 "각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 이후 일정도 순연되게 됐다.

애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미 FTA 개정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논란

店鋪 임대료 낮아진다지만 마냥 웃을 순 없는 세입자

건물주가 직접 상가운영 나서면 자영업자 알짜상권 진입 불가능
권리금 못받게 편법 써 내보낸뒤 새 임차인에 월세 높게 받을수도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강화 개정될 방침이다. 과도한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호법 개정 내용은 현재 상가임대료 상한인상률 연 9%를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보호법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인상해 전체의 60%였던 법 적용 계약을 9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호법 개정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보호법 개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내년 역대 최대 폭(16.4%)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이뤄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책인 셈이다.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용인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로 확실한 개정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당장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고려는 하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를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며 "부작용 등도 보고 있다"는 모호한 태도였다.

여당은 확실한 행보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발 보호법 개정안만 12개에 달한다. 의석수가 40석인 국민의당과 6석인 정의당도 골자는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일만 숙제로 남은 상태다.

다만 임차인 보호 목적인 보호법 강화에 대해서도 논란은 존재한다.

먼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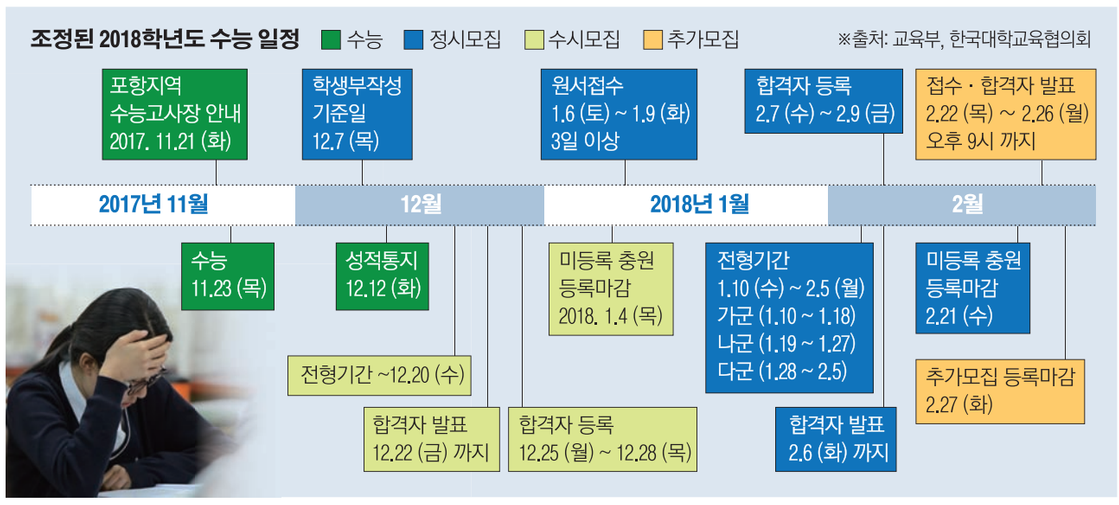
또한 일각에선 보호법이 뜨는 골목 상권의 개발을 제한하고 임대인들이 임대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 규제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직접 상가 운영에 나설 수 있어 실력 있는 자영업자로선 목좋은 상권에서 장사할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법망을 피해 임대인이 임차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신종 편법'발생도 우려된다. 실제 2015년의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 계약청구 기간이 5년으로 보장됐지만 여러 편법이 발생했다.

이 중 하나가 '무권리금화'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 권리금을 못 받게 한 뒤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권리금 액수만큼 월세를 높여 받는 방식이다.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기존 임차상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새 임차인을 찾는데 최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많았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 개정이 이뤄져도 임차인에게 실효적인 도움으로 작용할지는 반신반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시장 상황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증가하면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임차인에 전가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修能 연기 여파, 大入 일정도 1주일씩 뒷걸음

12월 12일 성적 통지… 수시합격자 등록 내달 25~28일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연기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주 주말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대학별 논술·면접 등을 연기한다"며 수능 연기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23일 수능을 치른 후 이의신청, 정답 확인 등 기타 일정 일체도 일주일 연기된다. 채점 기간은 하루 줄여 12월 12일 성적을 통지할 계획이다.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대학별 논술고사는 일주일씩 늦춰져 수능 이후로 미뤄진다. 수시모집 전형 합격자 발표 역시 12월 22일로 밀리게 됐다.

수시 등록기간은 다음 달 18~21일에서 25~28일로, 수시 미등록 충원 마감은 12월 28일에서 1월 4일로 미뤄진다.

수시모집 일정이 조정되면서 정시모집도 일주일 늦춰진다.

당초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였던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기간중 대학별 사흘 이상씩)은 1월 6~9일로 변경되고, 모집군(가·나·다군)별 전형기간도 모두 일주일씩 뒤로 밀린다.

1월 30일인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2월 6일로, 2월 14일인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은 2월 21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개인휴가를 사용해 시험을 치르려던 병사 등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과 협의해 병사 등 시험 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수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시학원,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 총연합회를 통해 수능 연기에 따라 학원을 연장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수능시험에 대해선 "출제문항 보안을 위해 수능출제위원과 인쇄요원의 합숙기간을 연장하고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문답지 보관소에 상시근무인원을 증원하고 주변 순찰 역시 강화하도록 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존 시험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체 시험장을 긴급히 마련해 수험생의 배치와 수송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포항지역 시험장에 대해서는 "18일까지 확정지어 21일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역 수험장 재배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창업자금 대출받아 땅 매입한 後 전원주택 용지로 팔아…

줄줄 새는 '귀농귀촌 지원금' 170억 부당 사용

정부가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05건(총 171억원)의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사업을 시작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금액을 점차 늘렸다.

지원금은 지난해 1838억원, 올해 3150억원이다. 귀농인은 지난해 1만3019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보조금사업△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귀농교육 등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점검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총 223건(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총 282건(21억원)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귀농한다며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 밭 등을 매입하고는 이들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용지로 타인에게 매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수사를 의뢰하고, 대출금과 이자보전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가수리비 등 귀농정착보조금은 수령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회수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둔 사례가 많았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도박에 빠진 목사님… 敎團 공금 30억 횡령

前科 12범 전력… 버릇 못고쳐
대법 "징역형 정당" 원심 확정

자신의 소속 기독교 교단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8) 전 총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목사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교단 대출금,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 임대차 보증금 등 약 30억 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목사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교육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특히 박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3000만 원이상의 현금이나 수표를 동원할 수 있어야 부여되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 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박 목사가 12번의 벌금형과 횡령, 배임죄의 징역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목사가 도박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했고 횡령액수가 대단히 크다"면서 "증거를 교묘하게 꾸민 정황이 엿보이며 때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박 목사가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목사가 교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전제하에 내려진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전깃불만큼이나
반딧불이도 많은
청정한 세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흘려보내던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기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에도 기여하는 혁신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옳은미래.
EV
ESS
전기차 배터리 / 부품
고효율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스마트 빌딩 시스템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LG

새 농협 은행장 오병관 유력

〈농협지주 부사장〉

20일 임추위 열고 후보 단독 추대
이경섭 행장 연임은 가능성 적어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회장
1심 재판 결과 따라 방향 관측도


오병관 금융지주 부사장


박규희 농협은행 부행장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

차기 농협은행장 인사의 향방을 두고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20일 임추위를 열고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 행장 후보를 단독 추대한다. 이후 은행 임추위를 거쳐 11월 말에는 행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12월 첫 주 중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 선임이 의결되면 부행장 등 임원급 인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이경섭 행장의 거취를 두고 연임론과 교체론이 팽팽했다. 이 행장은 조선·해운업 부진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빅배스를 털고 호실적을 이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농협의 신경분리 이후 농협은행장이 연임된 사례가 없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농협금융에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장 교체론에 힘이 실리는 전망이다. 그간 금융지주 부사장이 농협은행장으로 추대된 전례에 따르면 현재로선 오병관 지주 부사장이 가장 유력하다. 농협금융 부사장 자리는 김주하 전 농협은행장과 이경섭 현 은행장이 모두 거쳤다. 오 부사장은 농협 신경분리 당시 사업구조 개편을 전담한 장본인이다. 2010년 농협중앙회 금융구조개편부 부장과 2012년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 부장을 거쳐 2013년 농협중앙회 기획실 실장을 맡았다.

이창호 농협 부산지역본부장과 박규희 부행장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농어촌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 이력이 있다. 박 부행장은 작년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중 8명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다. 이밖에 전남에 연고를 둔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 '영업통'으로 불리는 김형열 부행장도 물망에 올라 있다.

일각에선 20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의중이 이번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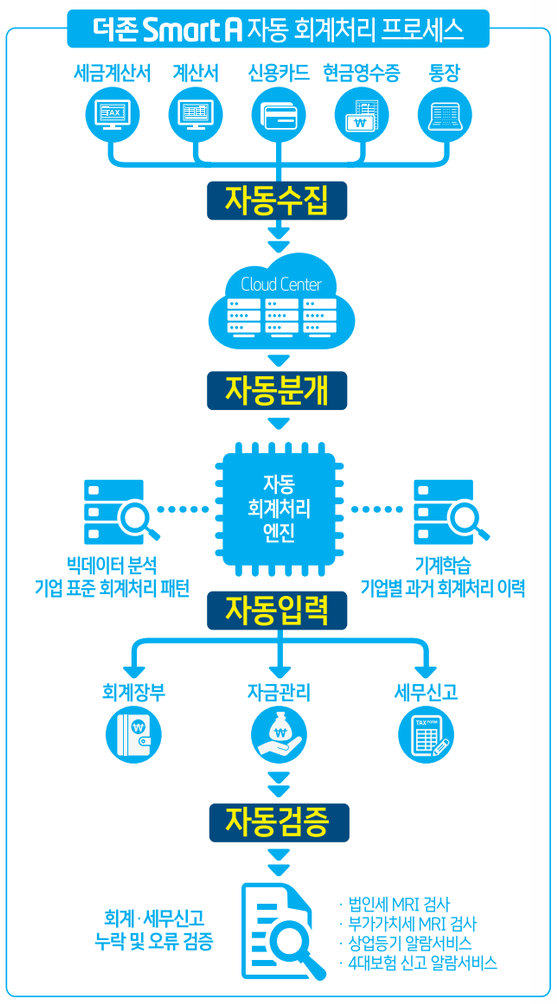
이번 인사에는 농협금융의 계열사 사장단도 포함된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을 포함해 서기봉 농협생명 사장과 고태순 NH캐피탈 사장은 12월 말, 이윤배 농협손해보험 사장은 내년 1월 말 임기가 종료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 건설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일용노무관리 · 구매관리 ·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 생산원가관리 · 외주관리 · 세무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CMS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임원 13명 전원 교체한다"

채용비리에 쇄신 나선 최흥식 금감원장

부원장보 후보 18명 대상 靑 검증 중
외부 기관 통해 대대적 조직개편 예고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각종 비위 행위로 얼룩진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임원진 13명에 대한 물갈이 인사에 나선다. 채용비리로 금감원의 신뢰가 바닥을 치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부원장 4명은 물론 부원장보 9명 전원을 인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지난 9월 최 원장 취임 직후 조직 쇄신과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최 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부원장 인사 일부가 단행됐다"면서 "부원장보 인사검증도 마무리 단계로 인사와 조직개편이 연내에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면 (간담회 참석한 임원들)모두 퇴임한다" 면서 "상황이 중대한 만큼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임원 인사가 최 원장 취임 두달여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현재 금감원은 2배수인 18명의 부원장보 후보들을 대상으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과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를 각각 금감원 수석 부원장과 부원장에 임명했다.

최 원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 대대적인 인적 쇄신 차원에서 임원 전원이 교체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세춘 부원장을 비롯해 이동엽 부원장, 김영기·민병현·류찬우·천경미 부원장보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김수일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이미 금감원을 떠난 상황이다.

이번 대규모 임원인사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최수현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변호사 채용청탁 비리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채용 특혜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 비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최 원장은 채용비리와 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채용 전 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류전형도 폐지한다. 대신 필기시험으로 1차 합격자를 가려낸다. 최종면접 땐 외부위원이 절반 참석한다. 외부청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선 발견 즉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은 30%, 퇴직금은 절반 깎기로 했다. 앞서 김수일 전 부원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에야 직무서 배제된 데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최 원장은 임원진 교체와 함께 후속 인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 초안이 11월 중 나오면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국민연금 "KB 회장, 이사회 참여 배제 반대"

"주주가치 훼손 우려" KB노조 요구 일축

KB금융지주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조 측이 주주제안을 통해 제시한 지주 회장의 이사회의 참여 배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지주 회장이 이사회에서 배제돼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내 6개 소위원회에서 일괄 배제하는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 노조 측이 주주제안을 통해 내놓은 안건은 2가지다. 지주 회장의 이사회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안건 등이다.

그 중 정관변경 안건은 지주 회장이 이사회 산하 6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장(長)을 사외이사(이사회 의장)가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6개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등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2개 안건(정관변경·노조 추천 사외이사) 모두에 반대할 것을 기관투자가들에게 권고했다. ISS는 정관변경 안건 관련해서는 "계열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박규준 기자 abc84@

국회 계류중인 은산분리 관련 법안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대표 발의자	강석진 (자유한국당)	김용태 (자유한국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유의동 (바른정당)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50%	50%	34%	34%	50%
대주주 대상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25%	금지	금지(예외적 허용)	금지	자기자본의 10%이내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소유한도 50%로 확대해야"

국회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세미나 열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17일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카카오와 KT의 지분은 컨소시엄에서 각각 10%와 8%인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그쳐 이들의 발언권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 주도 아래 추가 자본확충이나 주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이들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가진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양희동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건전하게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며 "걱정하는 것과 달리 이미 산업자본이 마음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등에 대해서는 많이 연습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했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은산분리제의 취지와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함께 고려한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삼성전자 임원인사 이어 조직개편·보직인사 계획

'미니 컨트롤타워'로?…'정현호 사단' 주목

임원인사 11명이 미전실 출신
정현호 팀장 입김 작용한 듯
사업지원TF에 합류 가능성

삼성전자가 임원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향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통해 이뤄질'사업지원 TF'팀 구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미래전략실 출신이 대거 중용되면서 사업지원 TF팀이 삼성전자 내에서 '미니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16일 2018년 정기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5명 등 총 221명을 승진시켰다. 27명의 부사장 승진자 중 4명이 미전실 출신이며, 118명의 상무 승진자 중 7명도 미전실 출신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현호<사진> 사업지원TF 팀장이 이번 인사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전실 출신 승진자 명단

	이름	미전실 담당업무	미전실 해체 후
부사장 승진자	강창진	경영진단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DS부문 기획팀장
	이왕익	전략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재경팀 담당임원
	최진원	전략 1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재경팀 담당임원
	안덕호	법무팀	DS부문 법무지원팀장
전무 승진자	서동면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임원
	김기원	기획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담당임원
	김남용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임원
	김상규	전략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재경팀 담당임원
	장성재	경영진단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감사팀 담당임원
	주창훈	인사지원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인사팀 담당임원
	임성택	인사지원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인사팀 담당임원

부사장 승진자에는 미전실이 해체되기 직전까지 근무했던 강창진, 이왕익, 최진원, 안덕호 전무가 포함됐다. 강 부사장은 2015년 12월부터 미전실 경영진단팀에서 일하다 미전실이 해체되면서 DS부문 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부사장은 미전실 전략팀에서 해체 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재경팀에서 근무했다. 최 부사장은 미전실 전략1팀에서 해체 후 이 부사장과 같이 재경팀에서 근무했으며, 판사 출신인 안 부사장은 미전실 법무팀에 있다가 DS부문 법무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이 부사장과 최



부사장이 있었던 전략팀은 그룹 계열사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를 조율했던 팀으로 향후 사업지원 TF팀이 진행하게 될 업무와 같아 귀추가 주목된다.

또 전무 승진자에는 미전실 출신 서동면, 김기원, 김남용, 김상규, 장성재, 주창훈, 임성택 상무가 포함됐다. 미전실 커뮤니케이션팀 출신에는 서동면 전무·김남용 전무, 인사지원팀 출신으로는 주창훈 전무·임성택 전무, 기획팀 출신에는 김기원 전무, 전략팀 출신 김상규 전무, 경영진단팀 출신에는 장성재 전무가 있다. 특히 임성택 전무와 주창훈 전무는 정현호 사장이 미전실 인사지원팀 팀장으로 있을 당시 함께 일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사업지원TF팀이 11명의 미전실 출신 승진자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옛 미전실이 부활될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힘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사업지원 TF은 미전실이 하던 업무 중 법무, 기획, 홍보, 대관 등 대부분을 떼어낸 팀이기 때문에 미니 미전실로도 불리기 어렵다"며 "전자 계열사의 인사와 하만 같이 굵직한 인수합병(M&A)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또다른 삼성 관계자는 " 이번 인사는 정현호 사단을 제대로 만들기위한 인사로 보면 된다"며 " 나머지 파트는 실적과 연공 서열로 무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한화, 금춘수·차남규·김창범 3인 부회장 체제로

차남규·김창범 등 사장단 5명 승진
자문기구 '경영조정委' 위상 강화
'일류 한화' 향한 선제경영 실천
옥경석 사장 등 외부 인재 중용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부회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부회장

한화그룹이 17일 대표이사 2명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연말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그룹 내 최고자문기구인 '경영조정위원회'의 금융부문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와 유화·에너지 부문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내부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이번 인사 대상 중 3명 중 1명을 외부에서 영입된 인재로 구성해 혁신을 겨냥했다.

한화그룹이 이날 내년도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을 위해 사장단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부회장 2명, 사장 2명, 부사장 1명 등 총 5명이 승진하고 대표이사 4명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그룹 내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을 원활하게 수행해 온 경영조정위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발탁 △순혈주의를 타파한 외부영입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하이브리드 경영 가속화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 경영조정위원회의 금융부문 차남규 대표이사와 유화·에너지 부문 김창범 대표이사가 각 부문별 시너지 창출과 최대 실적을 견인한 공로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경영조정위원회에 부회장이 3명이나 포진하며 위원회의 그룹 내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경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운영한 그룹 내 최고자문기구로, 그룹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계열사간 이해 관계 조정 등을 하고 있다. 그룹 경영기획실장인 금춘수 부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한화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외부 인재를 중용하며 하이브리드 경영에 속도를 냈다. 그룹의 모태인 ㈜한화·화약부문 대표이사에 지난해 영입한 삼성전자 출신의 경영관리 혁신 전문가인 옥경석 사장을 내정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아더앤더슨코리아, PWC컨설팅, 동부화재를 거친 박윤식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발탁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그룹 경영기획실로 자리를 옮긴 여승주 경영기획실 금융팀장 역시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선제적·전략적 리스크 관리는 물론 내실 경영을 강화했다.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로 김은수 부사장를 발탁하며 새롭게 진출한 면세점사업 등 경영현안 타개와 한화갤러리아 신규점포 확장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또한 ㈜한화 재경본부장에서 한화저축은행 대표이사로 내정된 김성일 전무는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 역임 및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근무 경험 등 금융분야에 대한 폭넓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건설 재무실장에서 한화역사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병열 전무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실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 받는다.

이번에 내정된 신임 대표이사는 각 사의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부산 벡스코서 19일까지

추위도 날렸다…'지스타' 열기 후끈

포항 지진·수능 연기 우려 불식
'파파온라인4' '배틀그라운드'…
신작·e스포츠 등 콘텐츠 풍부
관람객 몰리며 흥행 기대감 커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17' 첫 날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이 몰리면서 포항 지진과 수능연기로 인한 관람객 감소 우려를 잠재웠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지스타2017 첫 날 관람객이 지난해(3만7515명)보다 7%가량 증가한 4만111명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지스타2017은 올해 35개국 676개사 2857부스가 참가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인 데다 첫날 관람객까지 최대 규모로 몰려 흥행을 예고했다.

올해 지스타는 개최 전부터 흥행 기대감이 높았지만 개막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과 이로 인한 수능시험 연기 등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스타는 매년 수능일에 맞춰 개최해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다수 찾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험생 관람객의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람객 감소 우려는 개막 직후부터 사라졌다. 전시회 입장을 위해 전날부터 추위를 견디며 밤을 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입장을 시작한 정오에는 먼저 게임을 체험하기 위해 달려가는 관람객들이 대부분이었다. 개막 첫날 전시장 내부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으며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스타를 찾은 한 관람객은 "마치 퇴근길 만원 버스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을 보고 놀라워했다. 넥슨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을 찾아 준비한 대기 줄을 넘어서는 등 예년보다 흥행에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신작과 e스포츠 콘텐츠 덕에 관람객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지스타는 넥슨의 '피파온라인4', 넷마블게임즈의 '테라M', 블루홀의 '에어' 등 유저 관심을 끌만한 신작이 다수 공개됐다.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한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인기도 관람객 증대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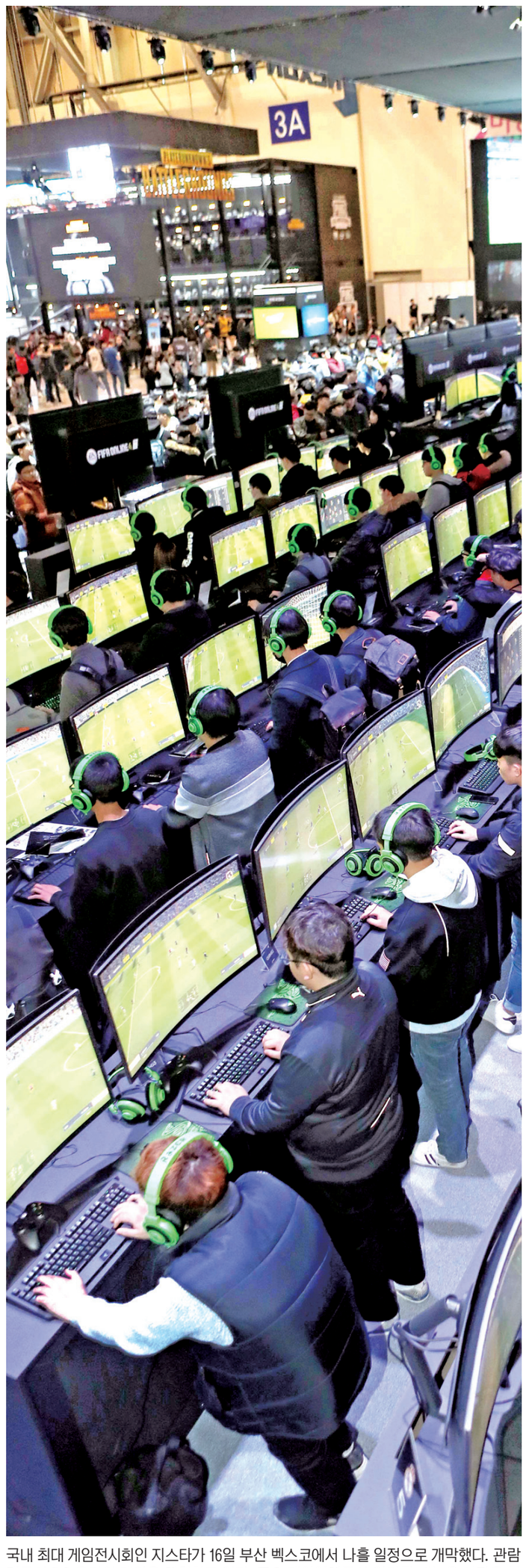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 아파트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2017.11.16.(목)일자로 이투데이 신문사에 공고한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아 래

정정내역	공급내역 중 공급대상에서 일반공급 84B 타입 세대 수 및 일반공급 전체 세대수 정정
당초	84B 타입 일반공급 세대 수 25세대 일반공급 전체 세대 수 61세대
정정	84B 타입 일반공급 세대 수 24세대 일반공급 전체 세대 수 60세대

시행사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고려개발㈜ / 대림산업㈜
문 의 : 02)474-9951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다. 관람객들이 PC 온라인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주요 게임업체들이 앞다퉈 내놓은 신작을 볼 수 있고 e스포츠 절정고수들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게임축제다. 연합뉴스

지진 공포에도 耐震강재 확산 더딘 이유는?

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시행했지만
내진강재 사용 강제안해 일반강재 써

잇따르는 지진 공포에 국내 철강업체들의 내진강재가 주목받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동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내진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진강재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빅3'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철근·강판·후판의 개발과 판매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이달 1일 국내 최초로 내진용 철강재 전문 브랜드 'H-코어'를 출범하며 내진강재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동국제강도 2010년 내진철근 SD400S, SD500S 개발에 성공하며 내진강재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KS 인증을 취득하여 진도 6.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철근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포스코는 1995년 SN 강재개발을 상용화 했다. TMCP강, HSA강, 내지진강관 등 강구조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진강재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TMCP강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산 킨텍스 등에 적용됐으며, SN 강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고양체육관 등에 사용됐다.

철강업체들이 내진강재 수요에 대비하는 것과는 달리 내진강재 사용 확산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진 H형강의 비율은 21%다. 4%에 불과했던 2012년에 비하면 증가세는 뚜렷하다. 다만 이마저도 낮은 수준이고 내진철근과 후판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장강재 사용에 탄력이 붙지 않는 이유로는 '관련법 부재'가 꼽힌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이 법으로는 내진강재 사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의 조건만 갖추면 내진강재 대신 일반강재를 사용해도 된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내진강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일반강재를 선택한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안경무 기자 noglasses@

총수不在 삼성家 故이병철 30周忌 조촐한 추도식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선대 회장 30주기 추도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주도하에 진행됐다.

홍 전 관장 측은 17일 경기도 용인 호암 미술관 인근에 있는 선영에서 추도식을 치렀다. 이 선대회장은 1987년 11월 19일 타계했으나 1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틀 앞당겨 행사를 치렀다.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비공개 추도식이었다.

이날 추도식은 삼성그룹이 가장 먼저 진행했다. 오전 8시 50분경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부문 사장 등 일가족이 선영에 도착해 20분 후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까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추도식을 주관 했지만 올해는 수감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6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는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권오현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새로 떠오는 정현호 사업지원TF 팀장 등이 선영을 찾았다. 이어 윤부근 삼성전자 CR 담당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인재개발담당 부회장 등 계열사 사장 50명이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오후에는 CJ·신세계·한솔 등 범(汎) 삼성가 그룹 임원들이 잇따라 선영을 찾을 예정이다. 이 선대회장의 추모식은 20여년 간 범 삼성가 그룹의 공동 행사로 치러졌지만, 삼성과 CJ간 상속 분쟁이 불거진 2012년부터 각 그룹별로 진행하고 있다. 선대 회장의 장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추도식과 별도로 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가족 제사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선대회장은 지난 1987년 11월19일 별세했다. 삼성의 시초는 이 회장이 1938년 만든, 쌀과 건어물을 주로 파는 '삼성상회'였다. 삼성상회는 설탕을 만드는 제일제당과 양복을 만드는 제일모직을 기반으로 현재의 삼성에 이르렀다. 이 선대회장의 뒤를 이어 1987년 12월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물려받았다. 내년이면 삼성 창립 80주년을 맞는다. 이광호 기자 khlee@

10여가구 놓고 밤새 줄서기… 1000만원 현금지참 조건에도 '60대 1' 북새통

投機판 전락한 청약잔여분 쟁탈戰

부적격 당첨자 물량 선착순·추첨으로
청약통장·다주택 有無 상관없이 판매

공지방식·선정절차 단지마다 제각각
돈다발 들고 수요자·투자자 몰려 혼란
국토부 '예비당첨 확대' 등 대책 검토

최근 주택청약 자격이 강화되고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어나자 건설사들이 선착순으로 청약 잔여분을 판매하면서 현장마다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등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 서울 지역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추첨' 또는 '선착순' 판매를 늘리면서 이를 얻기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의 잔여분 판매는 청약통장 유무, 다주택 여부를 묻지 않고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청약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과 투자자들까지 뒤엉켜 현장마다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여전히 분양 시장이 열기를 보이는 가운데, 청약 잔여분 모집마다 밤새워 늘어선 장면이 흔하게 연출되고 있다.

이달 서울 중랑구에서 분양한 '면목 라온프라이빗'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자 견본주택을 들러 연락처를 남긴 방문자들에게 청약잔여분 모집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10일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줄을 선 채 밤을 보냈다. 하지만 잔여 가구가 1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래미안 갤러리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들 역시 '래미안 DMC 루센티아' 미계약분을 추첨으로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참하고 늘어섰다. 이곳의 미계약 물량 역시 60대 1의 경쟁률로 모두 판매를 마쳤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송파구의 래미안갤러리에서 진행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미계약분 추첨, 현대산업개발의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미계약분 추첨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들 분양 물량 대부분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참하고 추첨만 되면 가져가다 보니 '청약 잔여분' 판매는 소위 '돈 있는 자'들의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 통장이 없고 다주택자라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 만큼 투기세력도 적지 않게 물량을 가져간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특히 각 건설사의 분양 단지마다 미계약분 계약 방식이 제각각이고, 이를 공지하는 방식도 모두 달라 참여 기회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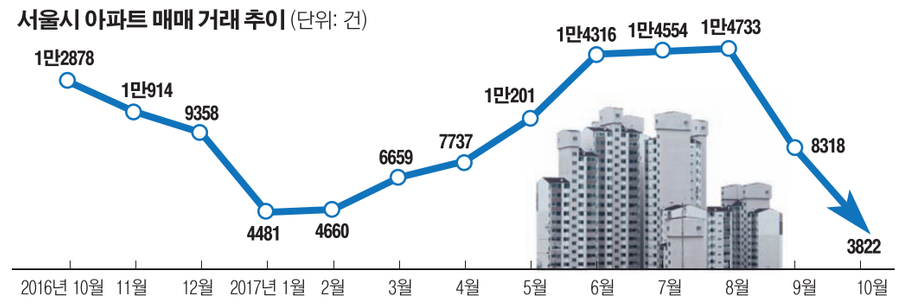
이에 건설사들도 온라인 추첨 등 절차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리고 온라인 추첨제 도입, 청약 잔여분 수량 공개 등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잔여분 소진은 8월 금지된 '내 집 마련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추첨제 등을 통해 건설업계와 실수요자,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서울 부동산시장 '눈치보기' 시작됐다

10월 아파트 매매 3822건… 작년의 30%에 그쳐, 전월보다 4500건 감소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상승과 하락이라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들의 눈치보기 속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17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인 10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8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1만2878건에 비해 30% 수준으로 축소된 규모다.

이 같은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은 9월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4733건으로, 지난해 8월의 1만2030건에 비해 오히려 22% 가량이 많았다. 하지만 9월 들어서며 831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1만839건에서 크게 감소한 수준을 보이더니, 10월엔 이보다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거래절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일관된 기조로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자 사이에서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형성된 반면, 매도자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거래를 꺼리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의 압박으로 주택을 매수할 자금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모두 10%씩 낮아진 40%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거래절벽으로 인해 거래량 자체는 위축됐지만, 이것이 매매가의 하락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2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한 달간은 -0.03~0.04%의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9월부터 10월까지는 0.01~0.08%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시세보다 올려 부른 호가에 나온 물건이 많기는 하지만, 올라간 호가에 사겠다는 수요자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맞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그런데 中區는 왜?

職住近接 매력·투기지역 제외로 상승세
신당동 '약수하이츠' 2개월새 1억 올라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중구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직주근접(職住近接, 직장과 집이 가깝다는 의미)' 입지임에도 저평가됐단 인식과 투기지역 선정에서 빠져 규제가 덜한 부분이 수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당동 현대아파트는 139㎡(3층)가 지난달 19일 6억 원에 팔렸다. 넉 달 만에 5000만 원 웃돈이 붙었다. 9월 신당동 약수하이츠는 84㎡(20층)가 두 달 전보다 1억2500만 원 오른 7억1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실제 중구는 8·2 대책 이후 오히려 상승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중구는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째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가 135 이상으로 나타났다. 9월 서울에서 중구와 강남구, 서초구만 이 수치를 넘겼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설문조사에서 전월보다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대책 이후 서울에서 순이동(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도 중구다. 서울은 8~9월 전출 인구가 전입을 2만여 명 앞지른 가운데 중구는 순이동 인구가 같은 시기 1368명으로 집계됐다. 중구도 이전까지 전출이 더 많았으나 대책 이후 전입이 역전했다.

아파트 가격도 8·2 대책 이후 상승폭이 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중구의 대책 이후(11월 6일~7월 31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47%로 대책 이전(7월 31일~4월 24일)인 1.12%보다 0.35%p 늘었다. 서울에선 강북구(0.09%p)를 제외하면 상승폭이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중구의 대책 이후 수요 증가는 직주근접의 매력과 주변보다 덜한 규제로 설명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게임 룰' 변경 위해, 분양시장 1週 쉽니다

2순위 청약자격 강화·재당첨 제한 등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반영 위해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 가동중단
27일부터 새로운 規則 적용 모집공고

이달 아파트 분양이 한 템포 쉬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 따르면 20일부터 24일까지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정비를 실시한다.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시스템에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은 2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5가지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은 청약통장 불요)에서만 청약통장이 필요했던 2순위 신청 자격을 '모든 지역 청약통장 필요'로 변경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세분화한다.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현행 고시 지역)',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눈다.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은 별도고시 예정으로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 후 1개월 경과자가 자격을 얻는다.

예비입주자 선정비율도 일반공급 주택 수의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동일 가구 중복당첨 시 1주택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가구 중복당첨 시 부적격 처리한다.

건설사들은 기존 제도로 분양을 시행하려면 이달 17일까지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2순위 접수가 24일 완료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다. 금결원이 시스템을 개편하는 기간에는 모집공고를 낼 수 없다. 개편된 시스템을 통한 모집공고는 27일부터 가능하다.

금결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현행 제도에 기반한다면 17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며 "영업일 기준으로 27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투유의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셈법이 복잡해졌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만3384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828가구 △부산 4264가구 △서울 3775가구 △전라남도 2946가구 △전라북도 261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 영향으로 일부 분양 일정을 미뤄야 하는데 연말이 거래 비수기인 만큼 내년 초로 물량을 이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달에 예정했던 분양을 12월로 넘길 수 있는데 문제는 비수기라는 점"이라며 "(미뤄진 분양을) 건설사들이 12월 초로 이월할지 내년 1월 초로 이월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SHINHAN
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IB Staff | Novita Emilda
신한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꿈을 꿉니다
내일의 인도네시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한의 앞선 금융시스템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新韓人.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 신한금융그룹

中 10대 부자 절반 3040…'디지털 경제'의 힘

〈30대 1명, 40대 4명〉

포브스 선정 '2017 中 부자' 평균 55세…美보다 12년 연하

IT·부동산·자동차·전자 부문 자수성가형 신흥 부호들 약진

스타트업 키운 장이밍·청웨이 등 30대 억만장자도 12명이나 돼

중국의 부호들이 젊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출신 성분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나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벌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젊은 나이에 스타트업을 세워 자수성가한 신흥 부호들이 약진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중국 부자' 순위에서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차이나에버그란데)그룹의 쉬자인 회장이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과 다롄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 등 쟁쟁한 인사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의 재산은 전년보다 400% 이상 급증한 425억 달러(약 47조 원)에 달했다.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은 재산이 60% 급증한 39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마윈 회장도 386억 달러로, 재산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났지만 3위에 그쳤다. 왕젠린이 252억 달러로 4위, 중국 최대 택배업체 순펑의 왕웨이 회장이 223억 달러로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상위 10위 부자들은 IT와 부동산, 자동차, 전자 등 4개 업종에서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IT 부문이다. 왕웨이 회장도 전자상거래 열풍에 따른 택배 수요 급증 덕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IT 부문에서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의 리옌훙 최고경영자(CEO)와 온라인 게임업체 넷이즈의 딩레이 CEO를 포함해 무려 5명의 톱10 부자가 나온 셈이다. 이들 중 마윈(53)을 제외한 4명이 모두 40대다. 인터넷 사업의 발전에 힘입어 중국 부자 지형도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중국 10대 부자 순위

순위	이름	재산	나이	기업
1	쉬자인	425억 달러	59	헝다그룹
2	마화텅	390억 달러	46	텐센트
3	마윈	386억 달러	53	알리바바
4	왕젠린	252억 달러	63	다롄완다
5	왕웨이	223억 달러	47	순펑
6	양후이옌	207억 달러	36	비구이위안
7	허상쥔	187억 달러	75	메이디그룹
8	리옌훙	171억 달러	48	바이두
9	딩레이	169억 달러	46	넷이즈
10	리슈푸	165억 달러	54	지리차

※출처: 포브스

포브스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들을 키우는 곳이 됐다며 중국 부자들의 평균 나이가 55세로, 미국 400대 부호 평균 나이(67세)보다 12년이나 젊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중국 부자들은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미국 부호들보다 10년 이상이나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 부자들의 30%가 50세 미만이다. 반면 미국은 그 비율이 10%에 그친다. 미국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지만 중국의 역동성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소셜커머스 메이퇀뎬핑의 왕싱(44) 공동대표는 41억 달러 재산을 자랑한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메이퇀과 뎬핑의 2015년 합병을 주도했다. 메이퇀뎬핑은 합병 이후 2년 만에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로 배 이상 치솟으면서 세계 4대 스타트업으로 떠올랐다. 음식배달을 넘어 화장품과 건강식 등 다양한 부문에서 O2O(Online-To-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뉴스앱 투데이헤드라인으로 대박이 난 장이밍(33) CEO는 차세대 미디어 제국을 꿈꾸고 있다. 그의 뉴스앱은 하루 실질 사용자 수가 1억2000만 명을 넘는다. 단순한 뉴스 포털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독자 개개인이 원하는 뉴스를 쏙쏙 골라내 보여주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위안의 양후이옌(36) 사장은 207억 달러 재산으로, 부호 순위 6위에 올라 중국에서 가장 젊은 여성 부호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그는 다른 신흥부자들과는 달리 1992년 회사를 설립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왕타오(36)는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DJI를 설립했다. DJI는 민간드론 시장을 개척해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른다. 드론 제조를 넘어서 영화촬영과 농업, 자연보호와 인명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상업적 이용 방식을 개척한 것이 DJI의 성공 비결이라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로 우버와의 경쟁을 이겨낸 디디추싱의 청웨이 CEO 나이도 34세에 불과하다. 청웨이 CEO는 애플과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이를 바탕으로 우버의 파상공세에 맞선 끝에 결국 우버차이나까지 사들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독일 연정 실패하나…침울한 메르켈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자메이카 연정' 예비 협상 휴식시간에 바버리아 요아킴 헤르만 내무장관과 침울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전날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에서는 난민과 에너지·환경, 세제, 유럽연합(EU) 정책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이 실패하면 메르켈 총리는 기민·기사 연합만의 소수 정부나 재선거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베를린/AFP연합뉴스

테크 인사이트 외골격 '엑소수트'



미국 포드 자동차가 '엑소 베스트'라는 외골격 수트를 도입해 조립 작업자의 육체적 부담 및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포드

포드車 공장에 '아이언맨' 떴다

수트 도입 후 사고율 83% 줄어

팔 동작 보조…피로·통증 예방

미국 포드자동차가 조립라인에 엑소 수트(Exo Suit, 착용형 외골격 로봇) 기술을 도입해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과 사고율을 줄였다.

9일(현지시간) 포드는 5월부터 미국 내 2개 공장에 엑소 수트를 시범 도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포드는 엑소바이오닉스와 협력해 상반신용 엑소 수트 '엑소 베스트'를 개발·도입했다.

엑소 수트란 사용자의 몸 외부에 골격 형태로 착용하는 장치다. 특수한 상황에서 착용자를 보호하고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 무척추 동물의 외골격을 본떠 만들어졌다. 엑소 스켈레톤, 외골격 수트 등으로도 불린다. 엑소 수트는 본래 군사적 목적이나 환자 치료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로 이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포드가 '엑소 베스트'라는 엑소 수트를 도입한 것은 조립 과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자동차 밑바닥을 조립할 때는 작업자가 차체 아래에서 일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작업자는 1일 4600회 1년간 100만 회 이상 팔을 올리면서 작업한다. 한 번 하기에는 부담없는 동작이지만, 장기간 반복하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만성 신체 통증,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포드는 수년간 작업자의 부상률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엑소 베스트가 그 해답이다.

조끼처럼 착용하는 엑소 베스트는 팔을 올리는 동작을 보조한다. 신장 150~190㎝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한쪽 팔에 최대 6.8㎏의 양력을 지원한다. 공구를 들고 차체 아래에서 일할 때 등과 머리를 받쳐줘 허리와 목, 어깨 등의 부담을 줄여준다.

미국 미시간주 웨인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폴 콜린은 시범 기간에 엑소 베스트를 착용했다. 콜린은 "나는 머리 위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등과 목, 어깨가 피로했다"면서 "엑소 베스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목에 찜질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곤하지 않다"고 소감을 밝혔다.

피로를 덜고 작업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사고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 포드는 엑소 베스트를 사용한 결과 사고율을 83%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상에 의한 업무량 제한이나 이직을 방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유럽과 남미의 포드 공장에서도 엑소 베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러스 안골드 엑소바이오닉스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엑소 수트를 다른 업무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혜 기자 winjh@

전시회 열고 유튜브 홍보…'라스트 다빈치' 값 4배 불린 '크리스티 매직'

'살바토르 문디' 5000억원…미술품 경매 최고가 낙찰

세계적인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일을 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구세주)'를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시켰다. 작품 소유주가 내놓은 금액의 4배로 가격을 불린 크리스티의 마케팅 비법에 관심이 쏠린다.

15일(현지시간) 뉴욕 크리스티에서 열린 경매에서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는 4억5030만 달러(약 4964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다.

'살바토르 문디'는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된다. 현재 다빈치의 그림은 20점도 남아 있지 않아 앞으로 다빈치 그림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를 고려해도 낙찰가가 놀라운 수준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경매 시작 전 작품의 평가액은 약 1억 달러였다. 낙찰가는 평가액의 4배가 넘는다.

앞서 크리스티는 2015년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예상가의 2배 이상 가격에 낙찰시킨 전력이 있다. 이 작품의 낙찰가는 1억7940만 달러로 '살바토르 문디' 이전까지 역대 최고 낙찰가로 꼽혔다. 지금까지 낙찰가 1억 달러 이상의 작품은 단 10점뿐이다.

이 같은 '낙찰 대박' 행진에 크리스티의 마케팅 비법이 주목받고 있다. 크리스티는 이날 출품된 58점의 작품 중 9번째로 '살바토르 문디'를 올렸다. 700석 규모의 경매장이 꽉 찼지만 크리스티는 작품 입찰 희망자만을 위한 특별 패들을 준비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크리스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경매를 홍보하기 위해 연 '라스트 다빈치'전에 관람객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 작품은 15일(현지시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억5030만 달러에 낙찰됐다. 뉴욕/니혼게이자이신문

순회 전시 1~2시간 줄 서며 호황

감동하는 관객 영상, 지름신 자극

前 최고가 피카소 이어 대박 행진

경매에 앞서 작품을 일반에 공개한 점도 이례적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경매를 홍보하기 위해 작품을 외부기관에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티는 '살바토르 문디' 경매에 '라스트 다빈치(Last Da Vinci)' 프로젝트로 이름을 붙이고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홍콩 등에서 전시했다. 전 세계에서 2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이번 경매에서 개인이 작품을 낙찰받으면 '살바토르 문디'가 다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만큼 이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21세기 최고의 발견'을 보기 위해 연일 1~2시간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연히 경매 기대감은 달아올랐다.

크리스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작품을 탐내는 이들의 '지름신 강림'을 부채질했다.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을 동경하는 수집가를 포함,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작품에 대한 반응만을 담은 영상임에도 조회 수는 10만 회를 넘었다. 알란 호버트 런던 핌 갤러리 책임자는 "이는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이라며 "이러한 방법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매는 초기 여러 명이 경쟁을 벌이다가 호가가 3억 달러를 넘기자 최종 2명이 맞대결을 펼쳤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수백만 달러씩 호가가 오르던 중 "4억 달러에 낙찰됐다"는 경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다. 구매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낙찰자가 류이첸 선라인 그룹 회장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그는 모딜리아니의 '누워있는 나부'를 1억7040만 달러에 낙찰받은 것으로 유명하며 상하이에서 롱뮤지엄을 운영한다. 류이첸은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자신은 다빈치 그림 낙찰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빈치가 1500년쯤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살바토르 문디'는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고 왼손으로 크리스털 보주를 잡고 있는 예수의 상반신을 그린 유화로 현존하는 다빈치의 그림 중 유일한 개인 소장품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영국, 브렉시트 투표 다시 해야"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영국의 CEO들이 브렉시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기념비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확인 투표'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확인 투표'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나 골드만삭스 측은 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CNN머니에 따르면 블랭크페인은 이번 주 영국 런던에서 고객 및 재계 리더와 회동을 가졌다. 트위터 내용은 블랭크페인이 현지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브렉시트에 반대한다. 영국의 EU 탈퇴를 반대하는 공식 캠페인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브렉시트 이후 런던에 있는 유럽 본부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옮길 것이라 시사해왔다. 지난달 블랭크페인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런던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많은 금융 기업의 유럽 거점이었다. 골드만삭스도 런던에서 약 6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 주 약 50개 은행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본사 이전 계획에 대해 유럽 당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브렉시트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영국과 EU는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6차 브렉시트 협상을 마쳤으나 기존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다.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비용, 상대국 체류민의 권리, 영국과 국경을 맞댄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특히 EU는 영국이 그동안 회원국으로서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유럽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양측은 2년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협상 시한은 2019년 3월이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영국은 협상 없이 EU를 자동 탈퇴하게 된다.

BBC는 금융기업들은 영국이 EU와의 무역 협상에 실패해 국경을 넘어 금융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유럽 재계 수장 14명으로 구성된 로비단체 비즈니스 유럽은 '브렉시트 노 딜'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느끼면 그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新사업 개발·정착 내 손 안 거친 일 없죠"

예탁결제원 43년만에 첫 여성 임원 김정미 본부장

26년 동안 증권대행부터 대차·파생·펀드 등 두루 거쳐 '전자증권' 내년 9월 시행 목표



"지금은 예탁결제원의 첫 여성임원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인재들이 금융기관 고위직에 포진하길 기대합니다."

김정미〈사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의 이력에는 매번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증권 유관기관의 첫 번째 대졸 여성 중견사원으로 1991년 예탁결제원(옛 한국대체결제주식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첫 여성팀장을 거쳐 2007년 첫 여성부서장으로 임명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김 본부장은 예탁결제원 설립 43년 만에 최초로 여성임원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입사 당시만 해도 여성 동기는 저를 포함해 단 4명뿐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 채용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질 정도로 늘어났고, 걸맞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레 여성임원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김 본부장이 걸었던 길은 '유리천장 부수기'라는 상징성에 머물지 않았다. 26년 동안 증권대행부터 대차, 파생, 펀드, 조사개발, 고객지원까지 각 부문을 두루 거치며 핵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증권대차·Repo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태국 파견 생활을 하기도 했다.

"신사업을 개발해서 정착시키는 일을 주로 해왔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에 맡은 전자증권추진본부의 일도 결코 녹록지 않다. 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원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9년 9월 시행을 목표로 계획 수립과 전문 컨설팅을 거쳐 시스템 구축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만으로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행사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미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자본시장은 일찌감치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해 증권예탁결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김 본부장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실물증권이 없어진다는 것은 화폐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대변혁"이라며 "그만큼 성공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자증권추진본부는 그의 지휘 아래 시스템통합(SI) 사업자를 선정해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고, 하위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동력을 그에게 물었다. 김 본부장은 "금융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맨파워"라며 "최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싶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이병현 주 유네스코대사,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16일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개최된 제203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이병현〈사진〉 주 유네스코대사가 2017~19년 임기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사는 유네스코 주재 이란대사와 경합 끝에 58개 집행이사국 중 32표를 얻어 당선됐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4년 임기의 58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 사업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운영기구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사가 유네스코의 핵심 운영기구인 집행이사회의 의장에 당선된 것은 1950년 유네스코 가입 이후 67년 만에 최초"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교육, 과학, 문화, 정보통신 등 제반 분야에서 쌓아온 대 유네스코 기여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이 대사가 유네스코의 개혁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도 현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네스코가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순직 경찰관·소방관 자녀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경찰·소방관 자녀 평창올림픽 관람

현대백화점그룹 후원

현대백화점그룹이 순직 경찰관·소방관 자녀를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지원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순직 경찰관·소방관 자녀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100억 원을 지원하는 공식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그룹은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순직 경찰관 및 소방관 자녀 160명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이 관람하게 되는 경기는 내년 2월 22일 열리는 남자 500m 결승, 여자 1000m 결승, 남자 5000m 계주 결승 등 3개 종목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들에게 숙박 및 식사 제공은 물론 기념품 증정과 차량 편의 등 경기관람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박 2일 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류현진·배지현 커플 내년 1월 5일 웨딩마치





메이저리거 류현진(30·LA 다저스)과 스포츠 아나운서 배지현(30)이 내년 1월 5일 결혼한다.

16일 배지현 아나운서의 소속사 코엔스타즈에 따르면 류현진과 배지현은 내년 1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이날 제주도에서 웨딩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최근 양가 상견례를 마쳤으며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합심해 차근히 결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인사

◆**국방부** △계획예산관 유균혜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김종구 〈과장급 승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지성훈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손윤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조류질병과장 권용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장 강환구

◆**국가보훈처** △대변인 김대원

◆**삼성전자** 〈부사장 승진〉 강봉구 김경준 김원경 김재윤 명성완 박경군 백수현 윤철운 이돈태 이명진 이왕익 전재호 정수연 조재문 최진원 강봉용 강창진 남석우 박용인 박찬훈 백홍주 안덕호 양걸 이규필 이봉주 전준영 정순문 〈전무승진〉 강민호 곽동원 김기원 김남용 김동욱 김명욱 김상규 김성환 김영도 김이태 김재훈 김주년 김현도 김현주 류문형 문성우 박봉출 박성선 서동면 송기찬 송봉섭 송원득 오세용 윤성혁 윤장현 이병국 임성택 장성재 전영식 정현준 조상호 주창남 주창훈 최수영 최중열 하드리안 바우만 디페쉬 샤 구자흠 권상덕 김선식 김진성 박광일 박두식 박영우 박호진 심은수 안정수 윤태양 이규열 이동기 이상배 이석준 장성대 장재혁 최길현 한승훈 한인택 홍형선 더못 라이언 제임스 엘리엇 〈상무승진〉 강정대 강태규 권상욱 김현 김상훈 김승일 김연정 김장경 김재영 김정현 김준엽 김창영 김창태 김태중 김태진 김평진 김형재 남정만 노태현 류일곤 목진호 박기철 박장묵 박종욱 배광운 배일환 설훈 손용우 손태용 송우창 송원준 심재현 안정희 양익준 양혜순 여태정 오지성 우경구 우홍욱 이경우 이기욱 이민철 이상욱 이상육 이승엽 이종규 이진구 이한형 장상익 장형택 정상규 정지은 정혜순 조성훈 조철호 지혜령 차경환 최순 최동준 최유중 한승훈 황근하 황호준 아심와르시 쉐인힉비 스테판코테 강석채 강희성 고경민 권순철 권형석 김기수 김보현 김수홍 김승리 김영대 김정주 김종한 김종훈 김준석 김중정 김지영 김진주 김태균 류재준 문형준 박제영 박종규 성낙희 성덕용 손중곤 송태중 신종신 오문욱 오재균 오태영 오형석 윤하룡 이금주 이상현 이승재 이정봉 이정자 이한관 이효석 이희윤 정승필 조용호 최영상 최찬식 편정우 한경환 한상연 한준수 허지영 홍기준 홍승완 주명휘 〈벨로우 선임〉 장은주 〈마스터 선임〉 강정일 서응렬 박세호 이충훈 남동경 손교민 신동석 윤찬호 이수용 이재덕 전신애 최병주 최선일 하대원 유리 마스오카 〈전문위원 전무급 승진〉 신승혁 이종현 황우찬 최수호 〈전문위원 상무급 승진〉 강윤경 김인창 박제임스 박창진 안진우 이재경 홍종필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승진〉 김종성 이우종 임관택 〈전무 승진〉 노철래 엄문섭 유정일 이병준 이오섭 이재규 이종혁 이청 정지용 조성순 〈상무 승진〉 강경춘 기장도 김광복 김용조 김종근 박준영 손동일 윤재남 윤지환 이관희 이병우 이일로 이재형 장근호 정성욱 정성호 채병훈 최열 홍권삼 황영선 〈전문위원 승진〉 이충섭 〈마스터 선임〉 윤주선 최범락

◆**삼성SDI** 〈부사장 승진〉 김정욱 〈전무 승진〉 김광성 김윤창 김희섭 손미카엘 신정순 이기채 〈상무 승진〉 김기준 김윤재 백순길 오정원 윤태일 장이현 조연진 조정용 〈마스터 선임〉 김일진

◆**삼성전기** 〈부사장 승진〉 유진영 이병준 〈전무 승진〉 김원택 류승모 심익찬 〈상무 승진〉 김한 김홍진 박선철 유달현 조정균 추철호 편수현 〈마스터 선임〉 박성찬 이종호

◆**삼성SDS** 〈부사장 승진〉 김호 박성태 〈전무 승진〉 강석우 김영주 노영주 민응기 최희주 〈상무 승진〉 김대우 김지현 도승용 박원식 박창원 백기열 이상훈 이지현 임재환 장인수 조송기 최장섭

◆**삼성벤처투자** 〈전무 승진〉 윤일석 〈상무 승진〉 장원상

◆**한화그룹** 〈대표이사〉 △옥경석 ㈜한화/화약 대표이사 △김은수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박병열 한화역사 대표이사 △김성일 한화저축은행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 차남규(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창범(한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승진〉 △박윤식(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여승주(경영기획실 금융팀장) 〈부사장 승진〉 △김은수(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내정)

한국여성 인물사전 〈237〉 우열녀(禹烈女)

절개와 용기를 겸비한 하층민 열녀

우열녀의 이름은 말질진(末叱眞)이다. 1657년(효종 8) 경상도 의성현(義城縣) 동촌(東村) 점지동(店池洞)이라는 궁벽한 시골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21세 때 안동인 김덕립(金德立)과 혼인하였다. 시부모로부터 "우리 현부(賢婦)"라는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1683년(숙종 9) 어느 날 갑자기 침입한 도적의 칼에 남편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 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 후 남편이 죽자 밤낮으로 호곡하며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그러지 못하고 수절(守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왔다. 친정에서는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 중인 아버지 막복(莫卜)을 봉양하였다.

우열녀는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노부(老父)와 계모를 잘 봉양한 효녀였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인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부를 물었고, 문안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보내드렸다.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제사도 정성껏 지낸 효부였다.

그러던 중 홀아비 군인 이영발(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여 청혼하였다. 이웃 부인도 개가(改嫁)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번 같이하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라며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가가 문제되지 않는 하층민 신분임에도 투철했던 우열녀의 수절 의지는 17세기 후반에 이미 양반층 여성의 열(烈)의 윤리가 서민층 여성에게까지 보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영발은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이웃까지 협박하였다. 아버지 막복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처하였다.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영발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 같은 꾸짖음에 이어 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소생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열행(烈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694년(숙종 20)에 '우열녀전(禹烈女傳)'을 지은 신덕함(申德涵·1656~1730)은 우열녀의 행실이 완비되었다고 크게 칭찬하였다. 우열녀가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견문도 없이 절개, 효, 지혜, 용기를 겸비한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열녀전'에는 출생과 성장 배경, 결혼 초의 시집 생활, 도적의 침입으로 남편이 죽고 졸지에 과부가 된 과정, 군인 이영발의 청혼과 협박, 결혼 독촉과 거짓말,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이에 대한 저항과 수절 의지, 이영발의 집 마당에서의 자결 시도와 소생 등이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다.

박주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에쓰오일 '지속가능경영' 최우수 기업

'ESG 시상식' 대상 수상… 환경·사회적 책임 호평



에쓰오일(S-OIL)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7년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4년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ESG 우수기업 시상을 실시하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에쓰오일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를 주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며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앞서 에쓰오일은 1일에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월드(World)' 부문에 아시아 정유사 최초로 8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잇따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에쓰오일은 '비전 2025'를 기치로 내걸고 지속가능경영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알 감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의 '비전경영' 리더십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해석했다. 알 감디 CEO는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이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이 되자는 경영철학으로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가장 존경 받는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하는 '비전 2025'를 발표한 바 있다.

알 감디〈사진〉 CEO는 ESG 대상 수상 소감을 통해 "에쓰오일은 '좋은 기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무적인 성과뿐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경영 활동을 통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임직원, 고객, 공급사, 협력사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부음

▲**곽경택**(영화감독)·**신애**(바른손E&A대표)·**규택**(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정지우**(영화감독)씨 장모상 = 16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51-636-444

▲**장현**(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씨 모친상 = 16일, 광주 한국병원, 발인 18일 오전, 062-380-3444

▲**김광묵**(풍산 상무)씨 별세, **김효선**씨 남편상, **재현**(머스코 코리아 엔지니어)·**희경**(그래머시 타번 요리사)씨 부친상 =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5

▲**서정철**씨 별세, **진교**(KBS 창원방송총국 PD)씨 부친상 = 16일, 경남 동창원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055-244-4000



신달자의 **햇살과 바람** 시인

떨어지는 나뭇잎이 내게 묻는다

태어나면 입학이고 숨을 거두면 졸업인 것이 삶이다. 문득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생각을 한다. 문득 늘 함께 있었고 그 둘레 안에 살았으면서 내 앞으로 당기고 당겨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창밖 풍경이 오늘 나를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학교가 아니라 저 밖의 풍경들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사는 삶이 곧 거대한 학교라는 사실에 내 생각을 곧추세우며 절친(切親)처럼 나무들을 바라본다. 사실은 거대한 학교가 자연 아닌가. 발을 조금 다쳐 외출을 못 하고 창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벌써 달포를 지나간다.



거실 창은 거대한 칠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칠판에 갖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떨어지는 낙엽은 문자가 되어 무엇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 조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더니 낙엽 소나기가 우두둑 떨어진다. 스산한 가을의 목소리가 들린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입동(立冬)을 지나 만추(晩秋)다. 아니 입동을 지난 겨울 입구다. 설악을 덮은 눈 소식도 이미 오래전이다. 가을이 온다고 말할 때 나는 더웠다. 가을이 간다고 말할 때 나는 추웠다. 가을은 그렇게 내 표현의 기둥으로 계절을 느끼고 보게 한다. 하루에 급격하게 칠판의 그림은 달라진다. 그냥 노오랗더니 붉더니 아주 샛노랗더니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나무엔 잎이 두어 개만 달려 있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칠판의 풍경은 눈만 뜨면 내게 묻는다. 집 안의 생활, 자기 안의 움직임에 따라 살다가 창밖 풍경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만 인식하고 살아 온 일이 많았다. 무상으로 신(神)이 준 저 세상의 자연풍경은 모두 우리의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문득 수억 수천의 대지와 하늘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내가 직접 손보지 않아도 사시사철 변화를 가지며 우리에게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자연… 그것을 길러주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오늘은 거대한 학교라는 생각을 새삼 느낀다. 그래 난 무엇을 생각했는가? 영하의 추위를 견디며 새잎을 내어놓는 장면에서 신록의 연두꽃을 볼 때 폭풍과 땡볕 안에서 근육을 키우는 녹음들, 그리고 붉게 물드는 단풍들, 그리고 더 줄 것이 없다고 고요히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그 나무와 함께 사는 바람 햇살 폭우 천둥 우박 번개들은 무엇인가?

이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해 곡진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행동을 함께하면서 목숨의 기본 공부는 세상의 자연을 느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월든'을 남기고 스스로 하나의 자연이 되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는 되지 못하더라도 이 가을 학교를 바라보며 나는 살아 있다는 일에 사무친다. 두 발을 의식하지 않고 걸어 다니던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다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에 비해 나는 지나치게 몸 사리고 옹졸하게 살아왔다는 걸 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순국선열의 날이다. 창밖의 풍경에 감상적으로 '울컥' 하는 이 감성이 부끄러운 것인가를 나는 아는가? 저 창밖에 나뭇잎 하나가 그것이 죽음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떨어지고 있다.

대방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再考를

10여 년 전 국제 심포지엄 참여차 서울을 방문한 스페인 사람을 안내한 적이 있다. 행사 종료 후 숙소에 바래다주고 나오려는데 그는 "너희 나라에는 모마가 없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갸우뚱거렸지만 이내 모마가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MoMA)의 약자임을 알아차린 후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는 것 같아 언짢았다. 그가 갖고 있는 지도에서 찾아주겠다며 지도를 펼쳤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도에는 정말 국립현대미술관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서울관이 생기기 전이었으니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찾았어야 했는데, 서울 지도에 과천이 나오지 않은 터. 당황스러웠다. 지하철을 타고 과천에 있는 대공원역에서 하차하라고 말했지만, 지도에 나오지 않아 지도 맨 아래 사당동즈음에서 지도를 뒤집어 뒤편 여백에 가상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장해 하차할 역을 표시해주었다. 당황스러움은 진땀으로 변했다.

대공원역에서 다시 코끼리 열차를 갈아타야 한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그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땀은 자조 섞인 속웃음으로 변했다. 2013년 서울관이 개관되었을 때 그 일이 생각 나 잠시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있다.

간혹 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시차 적응에 애쓰는 대신 숙소에 여장을 풀고 바로 그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현대미술관(MoMA)을 찾곤 한다. 샌프란시스코, 빈, 뉴욕, 스톡홀름 등 세계 유수의 현대미술관에서 백남준 작품을 만난 것은 큰 기쁨이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설치된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거대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한가운데 웅장하게 서 있다. 이런 거장의 대작이 우리의 현대미술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도 과천관에 가려면 어지간히 큰맘을 먹지 않으면 힘들다. 현재 영국의 팝아트 작가 리처드 해밀턴(1922~2011) 전시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마음만 굴뚝이다.

새 정부는 2000년부터 이전이 논의되어 왔던 국립민속박물관을 전격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발표했다. 마치 박물관을 이전 대상 공기관의 하나쯤으로 인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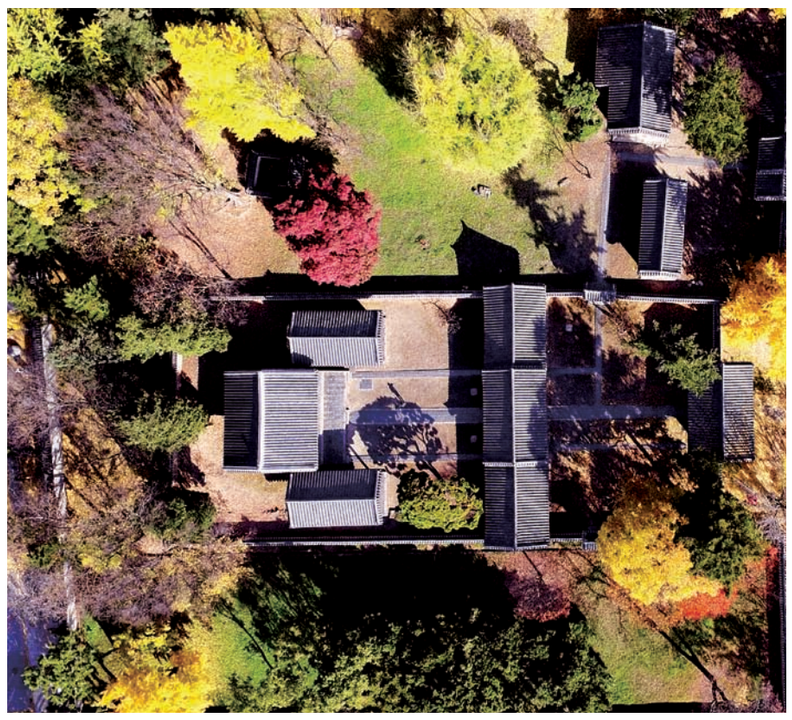
서울 사람이 남산에 잘 가지 않듯 민속박물관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의 민속 및 역사박물관을 찾듯 민속박물관을 찾는 외국인은 많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세종시에 민속박물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국립공주박물관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복궁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면 대체 부지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장소도 좋다. 이미 국립박물관이 인근에 있으니 박물관 부지로는 더없이 좋지 않을까.

내가 사는 곳은 주말이면 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차량으로 꽉 찬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찾는 차량들이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거대한 공룡이 고개를 건물 밖으로 빼 내밀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어린아이들에게 성지(聖地)가 된 지 오래다. 주민 입장에서 차가 막혀도 엄마아빠를 따라 종종걸음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진다.

'박물관이 살아 있다'라는 미국 영화가 있다. 밤이면 박물관 안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과 동물들이 살아서 활동한다는 내용인데, 시간과 공간이 응축돼 있는 박물관이야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꿈과 상상력의 보고(寶庫)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과거 모습을 재현해 보여주는 민속박물관은 외국 관광객뿐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호기심 천국이다.

이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적이 드문 과천 숲속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하였던 1980년대 공무원 식 발상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은 것 같다. 박물관은 단순한 수장고(收藏庫)가 아니다. 살아 있는 박물관을 보고 싶다.

한 컷



가을이 저무는, 전주 한옥마을

전북 전주시 경기전 일대의 단풍과 가을볕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계절의 끝자락을 전하고 있다. "가을아~안녕!" 했는데 벌써 "안녕…"이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온라인 e모저모

'집단 성매매' 가담자 80명 적발…"末世네 末世"

경찰이 최근 불거진 '집단 성매매'에 가담한 성매매 총책과 남녀 참가자 80여 명을 적발한 가운데 가담이 의심되는 남성 200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2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가담자 중에는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 고등학교 30대 교사와 30대 직업 군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집단 성매매 총책 A(31)씨와 불구속 입건한 운영자 2명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이들과 1~3차례씩 통화한 남성 200여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71명, 총 8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의 모텔에서 총 29차례 집단 성매매를 벌였다.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차례당 6시간가량 집단으로 성매매를 했다. 남성들은 참가비로 16만 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만~100만 원을 받았다.



네티즌은 집단 성매매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love****'는 "요즘 세상에 집단 성매매가 웬 말이냐", 'hrim****'은 "말세네. 동물이 아닌 이상 그러지 말자"라고 개탄했다.

네이버 아이디 '1472****'는 "가정 있으신 분들 부인한테 꼭 고백하고 같이 검사받길"이라며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 등 질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네이버 아이디 'ging***'는 "동물도 아니고, 이름과 주소 공개하고 엄한 처벌 바란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이슈&인물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國政哲學에 맞게 FTA 수정해야"

한·미 FTA 개정 어떻게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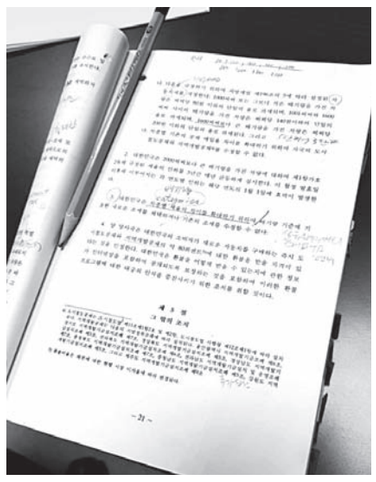
발제문 발표도 못한 토론회
통상관료들 국민과 소통 부족
民主적인 '通商 거버넌스'
일자리·환경 등 함께 고민해야

지난 5년 FTA 산업별 영향
이익·피해 객관적 評價가 시작
트럼프도 반대하는 ISD
이번 기회에 '폐기' 논의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는 항상 중심에 서 있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달 13일 서울 가락동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 저격수'로 불리는 송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미 FTA 협정문 책자에는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때 묻은 표지는 너덜거리고 빼곡하게 가득 적힌 각종 메모와 밑줄도 눈에 띄었다.



송기호 변호사 책상에 놓여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책자. 메모가 빈틈없이 가득한 것이 눈에 띈다. 박엘리 기자 ellee@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이 13일 서울 송파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공청회에서의 '통상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담은 FTA 개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런 자세로 농민 설득되겠나요?

송 변호사는 기자에게 A4 용지 3장짜리 발제문을 내밀었다. 그는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종합토론 전문가 8명의 패널 중 한 사람이었다. 공청회 현장에는 50여 곳 언론사의 기자들이 있었지만, 이날 어느 누구도 그의 발표를 듣지 못했다. 공청회가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자세로 어떻게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송 변호사는 가장 먼저 통상 관료들의 '소통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네 쪽짜리 공청회 자료집에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다며 정부가 객관적인 통계로 농민들을 설득해야만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익 또는 피해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최소한 공청회 때 제출됐어야 했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은 5년간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위에서 출발해야 국민적인 인식과 동의를 얻고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 벗어나야

송 변호사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도 없이, 발표문도 토론자들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은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통상 관료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송 변호사는 당내에 통상 특위를 구성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실 협상'이 아닌 국민의 동의 속에서 개정협상을 진행하는 등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한·미 FTA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통상관료들은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2006년 상황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경제민주화 요구가 강해졌고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용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무역 이익이 공유돼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새로운 한·미 FTA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국정 철학을 담으려면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도록 궤도를 수정하고 한·미 FTA의 추진 목표와 원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고용 창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의 반덤핑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무력했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적인 법제화를 가로막고, 저탄소 자동차 전면적 보조금 정책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건·교육·주택은 공공성 강화해야

자동차의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FTA로 인해 자동차 조세 체계 등 자동차 산업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도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국내법으로 다스려야 할 외국 기업 관련 환경, 노동 분쟁까지 국제중재로 해결하도록 한·미 FTA에 못 박아 논란이 됐다. 정부에 따르면 9월 7일 미국인 토지 소유자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수용 보상금액에 맞서 한·미 FTA를 근거로 ISD 의향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 수용보상금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었으나, 이제 공익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보상금액 문제까지 ISD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개의 FTA가 사법주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송 변호사는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운송 등 공공성은 더욱 강화하되, 법률 시장처럼 아직 기득권이 보호되는 부문의 개방 폭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 로펌이 한국에서는 '49% 지분제한'으로 인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법률회사를 세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외 개방의 폭이 굉장히 높음에도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부문은 전면 개방해 중소기업도 외국 법률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쌀 이미 의무수입…감당할 수 없다

농축산업계에 대해 그는 농업 분야의 FTA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농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농업 예산 지원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 농업 분야 투입 예산의 효용성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쌀은 레드라인"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지만, 송 변호사는 이미 쌀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쌀은 이미 513% 높은 관세율로 개방돼 있다"면서 "관세율이 높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으로 매년 약 40만 톤의 의무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쌀 농업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와 무관하게 1년에 연간 쌀 소비량의 12%가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농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적인 '통상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FTA 평가는 경제성 평가만 가지고는 안 되며, 삶의 개선과 일자리·환경·인권의 문제로 넓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처럼 'FTA 인권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포괄적인 경제·사회적인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FTA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쫓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필요에 의한 주체적인 개정협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民辯 국제통상위원장…쇠고기 협상·FTA 협정문 정부 誤譯 밝혀내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송기호(54) 대표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나 1985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전남 해남과 나주, 영암 일대 농촌에서 5년간 농민운동을 했다. 고향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전남지역 정책 실장을 지냈다. 이후 농민운동을 접고 잠시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해 사법고시 40회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뒤 농업통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차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쇠고기 협상 때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를 담은 미 식품의약청 보도자료를 정부가 정반대로 번역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ISD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으며,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까지 발견할 정도로 통상법에 정통한 통상 분야의 전문가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지금 잘되지 않는 조직이 있다면
2인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라

덕을 갖추었지만 우유부단했던 유비에게는 책략가인 제갈공명이 있었고,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지만 관리자로서의 역량은 부족했던 스티브 잡스에게는
성실한 관리자인 팀 쿡이 있었기에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조직, 기업,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 주변의 2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리더십은 더욱 강화되거나 빛이 바랜다. 주변에 사람을 잘못 두어 몰락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를 절실하게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인자와는 또 다른 리더인 2인자들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이 책은 1인자가 되기 위해는 반드시 거쳐야 할 2인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논한 책이다. 특히 조선시대 절대군주였던 1인자와, 관리 및 백성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던 역대 재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DBR 시리즈 05 탁월한 조정자들
김준태 지음 | 336쪽 | 15,000원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ongHyup Bank 3.1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은행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호-04620호
(2017.10.23.~2018.09.30)

내 손안에 자산전문가
NH스마트자산관리 Smart Pim
Property&Pension Investment Manager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스마트하게 활짝 Pim

자산관리서비스가 스마트하게 첫 인사드립니다.

자산설계
연령별, 상품군별 효율적 자산 배분

투자설계
수익증권과 퇴직연금의 안정적 투자

연금설계
적정연금액과 수령기간, 절세혜택 안내



[펀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투자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또는 펀드전용상담(1577-3443),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상품의 투자는 환율변동 및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등의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NH농협은행퇴직연금홈페이지(http://pension.nonghyup.com),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개발부서 : WM연금부**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천만명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전국 농축협,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보홀 섬에서 가장 큰 강인 로복강은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릴 정도로 울창한 열대원시림이 살아 숨쉰다. 사진제공 참좋은여행

푸른 해변 지나 密林 속으로, 그 자체가 힐링

필리핀 10번째 큰 섬, 인천 직항 취항
세계서 제일 작은 타르시어 원숭이
돌고래·열대어 직접 만나 체험하고
해질녘 해변에서 '낭만' 석양 만끽
이색적인 풍경과 천혜의 자연 매력

'동남아의 아마존' 보홀

보홀(Bohol)은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숨은 보석 같은 휴양지다. 필리핀의 대표적 휴양지인 세부에 가려 한국 관광객들에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6월 필리핀 국적 항공사 필리핀항공이 인천~보홀 직항노선을 취항하면서 직항 기준 4시간 30분이면 보홀 탁빌라란(Tagbilaran)공항에 도착한다. 과거 세부의 선착장에서 2시간가량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여행지가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따뜻한 휴양지를 원한다면 따스한 햇살 가득한 보홀로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산과 바다의 매력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매력만점이다. 참좋은 여행사가 제안하는 보홀 여행 코스를 알아보자.

보홀의 매력은 단연 아름다운 바다다. 알로나비치는 팡라오(Panglao)섬 남서쪽에 위치해 보홀과 팡라오 섬을 대표하는 해변이다. 제2의 화이트비치로 불리며 고운 모래로 덮여 있는 백사장과 해안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저녁 무렵 해변에서 바라보는 석양 역시 또 하나의 묘미로 꼽힌다. 해변 식당들이 해변가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을 하는데, 이때 로맨틱한 분위기는 보라카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안겨준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인 타르시어는 보홀의 명물로 불린다(위 사진). 보홀과 팡라오 섬을 대표하는 알로나비치 해변은 백사장과 해안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참좋은여행

키세스 초콜릿 모양으로 올록볼록 솟아 있는 초콜릿힐은 보홀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다. 1268개의 언덕이 일정한 모양과 높이로 이뤄진 이곳은 초록색으로 덮여 있다가 건기에는 서서히 갈색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언덕이다. 멀리서 보면 꼭 초콜릿이 뿌려져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보홀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힌다. 200만 년 전 얕은 바닷속에 있다가 지층이 움직여 지면 위로 솟아오른 이색적인 풍경이 눈길을 잡아끈다.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로복강은 원시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밀림을 연상케 한다. 로복강 마을에서 부사이 폭포까지 2km가량 야자수로 둘러싸인 열대림 터널을 누비는 로복강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선상 레스토랑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또 전통배를 타고 로복강 주변에 사는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보홀을 대표하는 명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 타르시어(Tarsier·필리핀 안경원숭이)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다. 타르시어는 보홀에서만 살고 있는 야행성 동물로, 영화 '그렘린' 속에 등장하는 기즈모의 모델이기도 했다. 체중은 120g이며 특이하게도 목이 180도 뒤로 돌아간다고 한다.

또한 보홀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환상적인 수중환경을 자랑해 예전부터 스쿠버다이버들이 주로 찾는 지역이다.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인 발리카삭(Balicasag) 섬은 보홀 근처의 작고 동그란 모양의 섬으로 호핑투어를 즐기기에 좋다. 마치 수족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스노클링은 발리카삭의 메인 액티비티로 푸른 바닷속에서 수많은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거북이도 볼 수 있다.

이외에 배를 타고 돌고래들이 지나는 길목으로 떠나는 돌핀 와칭(Dolphine Watching), 수많은 열대어를 직접 만나보는 체험 다이빙, 신비로운 무인도 버진 아일랜드 탐방 등도 추천 코스다.

보홀을 조금 더 알차게 즐기고 싶다면 필리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인공삼림 맨메이드 포레스트(Manmade-forest), 대나무로 만들어진 행잉 브리지(Hanging Bridge), 16세기 스페인 선교사들이 만들어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교회 빠클레욘(Baclayon) 교회를 가보는 것도 좋다. 또 팡라오섬 절벽 위 환상의 포인트 위에 지어진 레스토랑에서의 디너, 계곡과 계곡을 이어주는 스카이라인에서의 짜릿한 집라인(Zip Line) 체험 등도 이색적이다.

김민정 기자 mj@

상품의 속살 '듀오락'

腸까지 가는 이중 코팅…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점유율 1위

바야흐로 셀프메디케이션 시대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건강과 질병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경향이 이전보다 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약진이다. 비타민보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유익한 살아 있는 균으로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을 준다.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의 10% 정도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입한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 보니 관련 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 시장은 올해 20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듀오락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쎌바이오틱은 '이중 코팅' 기술을 의미하는 '듀오락(DUOLAC)' 브랜드로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수년째 1위를 이어오고 있다.

듀오락에는 인체 고유의 산도(pH) 차이를 이용해 유산균이 위에서는 견고한 코팅 구조를 유지하고 장에서는 그 구조가 풀어져 안전하게 장에 도달하면서 정착·증식하는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 듀얼 코팅 유산균을 섭취하면 비코팅 시보다 유산균의 장내 생존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위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 정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듀오락은 지속적인 임상시험과 특허 취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한편 제품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글로벌 5개국의 특허를 받았고 과민성대장증후군(IBS), 비만, 혈당, 아토피,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질병 관련 임상 시험을 통해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듀오락 제품은 신생아용 '듀오디-드랍스', 유아용 '베이비', 어린이용 '얌얌', 성인용 '골드'와 '케어'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 강화를 위해 개별 균주명, 각 균주의 함량, 보장 균수도 표기하고 있다.

김우경 쎌바이오텍 대외협력팀 이사는 "듀오락은 국내에서 수출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75%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세계인에게 인정받은 제품"이라면서 "제품 개발 및 생산, 마케팅 전 과정이 미생물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소비자 신뢰를 한층 강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날씨와 생활 롱패딩

선수들이 입던 만년 '벤치파카' 겨울 大勢 됐네

온몸 감싸 이불 같은 보온성 자랑
니트·원피스로 여성스럽게 연출도

때 이른 추위로 갑자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인, 이른바 벤치파카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벤치에서 입어 이 같은 이름이 붙은 벤치파카는 최근 품절대란의 주인공이 됐다.

1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출시된 평창올림픽 공식 굿즈 벤치파카는 출시 보름 만에 1만 장이 팔려나갔고, 아동용 초도물량 2000장은 완판됐다. 재생산 문의도 빗발친다. 이 같은 흥행에 벤치파카는 올겨울 핫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캐주얼 브랜드 흠에서는 가을·겨울 시즌 대표 상품으로 에어 범퍼 롱 패딩 시리즈를 출시, 스포츠·캐주얼·포멀 등 3가지 스타일을 선보였다. 오리털 충전재를 사용해 뛰어난 보온성과 복원력을 겸비, 투웨이 지퍼 기능으로 편안함을 한층 높였다. 잠뱅이는 벤치파카의 캐주얼 스타일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아이돌 가수 전소미를 모델로 내세워 후드티와 청바지에 벤치



네파 '캄피오네 벤치다운' 파카

파카를 입고 운동화를 착용해 캐주얼하면서도 톡톡 튀는 매력을 드러냈다.

잠뱅이 관계자는 "후드 티셔츠 대신 풀오버 니트를 함께 연출하면 좀 더 여성스러운 벤치파카 패션이 완성된다. 또 시폰 블라우스와 니트를 레이어드하고 상의에 벤치파카를 더하면 스타일리시한 레이어드 룩을 연출할 수 있다"고 스타일링 팁을 제안했다.

스위브는 마테호른K 롱패딩을 선보였다. 오리털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은 물론 가볍고 세련된 핏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블랙, 화이트, 차콜 등의 색상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도 넓다. 마테호른K 롱패딩은 5년 연속 완판을 이뤄낸 제품이다. 올해 출시 이후 3주 만에 3000장 이상 판매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1, 2차 공급량이 모두 소진됐다.

네파는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의 사이폰 벤치다운을 선보였다. 색상 구현이 탁월한 폴리 소재를 적용해 선명한 컬러감이 돋보인다. 아웃도어 업계에서도 최장 길이를 자랑하며 라미네이팅 소재를 적용해 보온성과 방풍 기능 또한 우수하다. 실제로 이불처럼 따뜻한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불패딩'으로 불리며 선판매 기간(8월)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현재까지 누적 판매율이 85%(입고 기준)에 달한다.

서혜민 네파 마케팅본부 과장은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추운 날씨에는 최근 유행하는 이불처럼 온 몸을 감싸주는 긴 기장의 벤치다운이나 찬바람을 막아주는 풍성한 퍼가 달린 야상형 다운재킷을 입으면 따뜻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며 "여성스러운 원피스나 스커트를 매치해 입으면 패딩의 투박함을 줄여줘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겨울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정 기자 mj@

年末 안방극장은 '놈 놈 놈'이 접수한다







예지몽 소재 '당신이 잠든 사이에' 대박 친 SBS
후속작 '이판사판'으로 장르물 명가 '입지 굳히기'
월화극 '의문의 일승' 편성… 수사·법정물 릴레이

SBS가 올 연말 마지막 라인업까지 장르극을 배치하며 '장르물 명가'의 입지를 굳힌다.

시청자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SBS 수목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16일 종영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판타지 '로코' 장인으로 떠올랐던 박혜련 작가의 작품인 만큼 이번 드라마 또한 예지몽이라는 초자연적 요소를 삽입해 대중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의 배턴을 이어 받는 것은 '이판사판'(극본 서인·연출 이광영)이다. 오빠의 비밀을 밝히려는 법원의 자타 공인 '꼴통 판사' 이정주(박은빈 분)와 그에게 휘말리게 된 엘리트 판사 사의현(연우진 분)의 이판사판 정의 찾기 프로젝트를 그린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점은 또 하나의 법정물이라는 부분이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상한 파트너' 등에서도 검사 직업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했고, 올 초 인기를 끌었던 '귓속말' 또한 법률 비적을 타진하는 이야기를 그리며 극의 주 배경으로 법정이 등장했다.

이들과 다르게 '이판사판'이 차별화를 노리는 지점은 주인공들의 직업이다. 그동안 법정물에서 변호사와 검사 캐릭터가 주축이 돼 극을 이끌어갔다면, '이판사판'은 판사들이 주인공이 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방점을 둔다. 로맨스가 극에 등장하지만 그 기반엔 여러 사건들이 큰 줄기를 이루며 극에 긴장감을 배가시킬 전망이다. 법정물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SBS 드라마였던 만큼 시청자들이 '이판사판'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의문의 일승

수목드라마로 '이판사판'을 편성해 법정물 계보를 이어간다면, 월화드라마에서는 '의문의 일승'으로 수사물을 새롭게 선보인다.

'사랑의 온도' 후속으로 편성된 SBS 새 월화드라마 '의문의 일승'은 '누명 쓴 사형수'에서 '어쩌다 탈옥수'가 된 의문의 한 남자가 '가짜 형사 오일승'이 돼 숨어 있는 적폐들을 쳐부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사랑의 온도'가 지지부진한 전개로 안방극장의 공감을 사지 못한 채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 자리를 경쟁작에 내어준 만큼 '의문의 일승'이 새로운 반등 포인트를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시놉시스부터 '배짱 활극'이라는 말을 담은 만큼 답답한 전개보다는 속 시원한 '사이다' 전개를 기대해봐도 좋다. '역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윤균상이 또 한 번 의로운 인물로 분하는 만큼 흥행 기세가 이어질지도 지켜볼 만하다.

특히 누명을 쓴 사형수가 탈옥 후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내용은 SBS의 올해 히트작 중 하나인 '피고인'을 연상케 한다. '피고인'은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검사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딸을 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방영 당시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낼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의문의 일승'이 '피고인'과 같은 궤적을 그리며 SBS의 연말을 훈훈하게 장식할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판사판'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후속으로 2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의문의 일승'은 '사랑의 온도' 후속으로 27일 오후 10시에 1, 2회가 차례로 전파를 탄다.

김예슬 기자 yeye@

tvN, 신원호 사단 '슬기로운 감빵생활' 전진배치
흥행담보 '막돼먹은 영애씨 16'으로 고정팬 몰이
OCN, 12월 '나쁜녀석들 2'로 前作 아성에 도전

tvN과 OCN이 드라마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다진다. 양사는 흥행이 보증된 작품으로 연말을 대비하고 있다.

'부암동 복수자들'을 통해 수목극 블록을 시청자에게 각인시킨 tvN은 새로운 기대작을 통해 입지를 더욱 굳힌다는 계획이다. 앞서 '크리미널 마인드'로 야심차게 수목드라마를 론칭했으나 부진한 성적으로 고배를 마셨던 tvN인 만큼 '부암동 복수자들'을 통해 거둔 수확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런 기세를 이어가고자 tvN은 자사 최고의 흥행작인 '응답하라' 시리즈의 제작진이 선보이는 신작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수목극으로 배치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감옥을 배경으로 미지의 공간 속의 사람 사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다.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박해수 분)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들어간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블랙코미디가 주 내용을 이룬다.

무엇보다도 기대를 모으는 건 흥행 제작진의 신작이라는 점이다. 신원호 감독과 이우정 작가가 다시 한 번 연타 흥행 홈런을 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에 더해 신선한 얼굴들의 대거 등장과 그동안 드라마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감옥에서의 삶을 집중 조명한다는 부분도 궁금증을 더한다.

신원호 감독은 이번 신작에 대해 "실화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촘촘히 배치된 게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힘이다. '응답하라' 시리즈와는 다른 코드의 반전들과 페이소스들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막돼먹은 영애씨

이에 더해 tvN은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후속으로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을 편성했다.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인 만큼 고정팬들이 상당하다. 기존 인물들의 재등장은 물론 새로운 캐릭터의 투입으로 신선함까지 더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흥행을 담보하고 있는 '막돼먹은 영애씨'가 거둘 성과에도 기대가 모인다.

tvN에 이어 OCN도 기존에 선보였던 인기작의 새 시즌을 선보인다. 2014년 방영 당시 큰 인기를 모았던 '나쁜녀석들'의 후속 시즌인 '나쁜녀석들: 악의 도시'가 1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나쁜 녀석들이 부패한 권력 집단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액션 누아르 드라마다.

특히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는 전작의 성공을 이끌어냈던 제작진이 또 한 번 의기투합해 기대를 더한다. 주연 배우들이 전원 교체됐으나 특유의 통쾌한 극 전개와 연출이 재현되는 만큼 전작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yeye@



인터뷰 JTBC 드라마 '더패키지'로 배우 컴백 **정용화**

"정조대 차고 능청연기 하다보니 딱딱한 성격도 싹~"

1년전 프랑스서 찍은 '더패키지'
늑장 편성에 불안했지만
본방 보니 추억 새록

민망·민폐 캐릭터
산마루役 부담
출연 고민했었지만
연기할수록
그와 닮아가…
예능넉살도 부쩍

2017년 정용화는 '종횡무진'이란 말에 걸맞은 행보를 보였다. 씨엔블루와 솔로 가수 활동뿐 아니라 중국배우 셰팅펑(謝霆鋒·37)과 호흡을 맞춘 영화 '미스터 쉐프'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tvN '섬총사'에서는 능청스럽고 엉뚱한 막내로 김희선, 강호동은 물론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에게 JTBC '더패키지'는 3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이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촬영을 완료했지만, 편성은 1년이 지난 후에야 확정됐다. 프랑스에서 두 달 동안을 고생하며 찍었던 드라마가 전파를 타기만을 기다리면서, 정용화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엄청 기다렸죠. 방송이 안 되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 드라마와 어울리는 쌀쌀한 계절이니까요. 1년 동안 여운을 즐겼어요. 기다린 만큼 더욱 애정이 생겼죠. 드라마 본 방송을 보면서는 촬영 당시의 추억들이 같이 생각났어요."

'더패키지'는 각자 다른 이유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프랑스 패키지 여행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단체 행동을 해야 하는 탓에 낯선 사람들과도 가까이서 부대껴야 한다. 정용화는 호기심 탓에 각종 민폐를 일으키는 여행객 산마루로 분했다. 프랑스 문화유산인 정조대를 착용했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히는 대형사고를 치기도 했다.

"대본이 아주 좋았는데 정조대 장면 때문에 출연을 고민했어요. 문화유산을 건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보기에도 민망하니까요. 그 장면을 이틀 정도 찍었는데, 나중에는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그냥 차고 있게 되더라고요. (웃음) 재밌게 봐 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성적인 편인데, 극 중 산마루는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용기가 있어서 부러웠어요. 평소에도 그런 성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점점 캐릭터와 닮아갔던 것 같아요."

정용화는 SBS '미남이시네요'로 데뷔했다. 이 드라마로 한류 스타가 된 그는 많은 작품에 출연하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연기를 해왔다. 덕분에 '더패키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능숙하고 풍부해진 표현으로 호평받았다.

"예전에는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요즘은 대본을 받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연구를 하게 됐죠. '더패키지' 촬영 때도 현장에 먼저 가서 활용할 배경들이 있나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굳어 있던 몸이 조금은 편해진 느낌이에요."

"그저 섬에 가고 싶어 출연을 결심했다"는 그는 '섬총사'에서는 '진짜' 정용화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카메라가 겁나 경직돼 있었다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사실 예능에서 저를 보여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미지도 걱정됐죠. '섬총사'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 좋은 공기 속에서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2017년에 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년이면 서른 살이 되고, 데뷔한 지도 8년이 넘었는데 아직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 주신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행복해요. 스케줄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더패키지'도 그래요. 제가 언제 두 달 동안 프랑스 여행을 하겠어요? (웃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글/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기억에 남을 배우 되려면 게을러지지 말아야죠”

데뷔 10주년 맞은 배우 홍종현



이 남자, 잘생겼다. 날카로운 눈매가 서늘한 인상을 주지만 미소를 지어 보일 때는 선하고 착실한 얼굴이 된다. 배우 홍종현이 잠재적 사이코패스에서부터 완벽에 가까운 고려 귀족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외모가 한몫했다. 또한 이 남자, 성실하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을 묻자 “게을러지려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답했다.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잘생긴 외모가 복(福)이라면 성실함은 그가 쌓은 덕(德)이었다고. 그리고 배우 홍종현을 만든 것은 복이 아닌 덕이었다고.

- 2007년 모델로 데뷔해 10주년을 맞았다. 소감이 어떤가

“신기하다. 관심받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은 늘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팬들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진다. 얼마 전 팬미팅을 했는데, 내 미흡한 모습마저 좋아해 주시고 귀엽게 봐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 팬들과 함께 즐기다가 왔다.”

-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 가운데 지금의 홍종현을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은 무엇인가

“모든 작품이 도움이 됐다. 경력이 늘어가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점점 중요한 임무가 생기는 느낌은 있다. 내가 맡게 되는 캐릭터의 역할, 내가 대본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그림을 작품 안에서 더욱 잘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커진다. 하지만

모델로 시작… 2010년 영화 ‘정글피쉬2’에서 배우로
작품 2~3개쯤 한 뒤 슬럼프… 일기 쓰며 이겨냈죠
연기력 다시 봤다는 말 들을 때 가장 뿌듯해

어렸을 때 맡았던 작은 역할도 내겐 중요했다. 하나만 꼽기는 힘들다.”

- 10년간 활동하면서 슬럼프는 없었나

“두 번 있었다. 첫 슬럼프는 20대 초반 작품을 2~3개쯤 하고 난 뒤에 찾아왔다. ‘내가 연기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슬럼프는 20대 중·후반에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내가 연기를 할 만한 사람인가 고민했다.”

- 어떻게 이겨냈나

“나는 고민이 생겨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앓는 편이다. 일기를 쓰고 난 후 내가 쓴 일기를 읽으면서 고민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힘들어도 내가 연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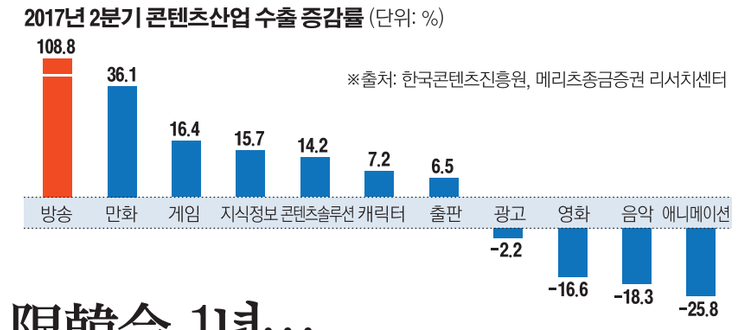
-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것은 영화 ‘정글피쉬2’(2010)부터다. 배우 데뷔 10주년(2020년)에는 뭘 하고 있을 것 같나

“군대에 있을 것 같다.(웃음) 군 생활 중이라는 가정하에 얘기하자면, 빨리 현장에 나가고 싶어 할 것 같다. 일에 대한 욕구를 긍정적으로 잘 쌓아뒀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하나둘 열심히 펼쳤으면 좋겠다.”

- 어떤 배우가 되고 싶나

“연기력이 미흡하던 시절의 나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보며 ‘감명 깊다’ ‘다시 봤다’고 반응할 때 가장 뿌듯하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오지는 않았다고 느낀다. 앞으로도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이 할 것 같다. 나를 무조건 좋아해 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기억에 남을 만한 배우가 되고 싶다.”

글/이은호 기자 wild37@·사진/고아라 기자 iknow@



限韓令 1년…
세계 무대서 답 찾은 엔터기업들

1년여 시간 동안 꽁꽁 닫혀 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 최대 시장을 잃은 후, 그동안 엔터 기업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을까.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배치에 반발하며 암묵적으로 한국 관광 금지, 한국 콘텐츠 수입 금지로 맞불을 놨다. 일명 ‘한한령(限韓令)’이다. 이전부터 암암리에 괴담처럼 떠돌았지만 지난해 8월 6일 KBS2 ‘함부로 애틋하게’ 중국 베이징 팬미팅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가시화됐고, 이후 콘서트는 물론 중국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촬영분까지 통편집됐다. 합작 프로젝트 역시 전면 중단됐다.

SM·YG 등 美·日·유럽 월드 투어 늘리고
제작사들은 소니 픽쳐스 등 할리우드와 협업

위기의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은 발빠르게 중국 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피해를 줄였다.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매니지먼트 기업들은 미국, 유럽 등 월드 투어를 확대하고 일본 콘서트에 집중했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한령 이전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중국 매출 비중은 13% 내외에 불과했다”며 “한한령 완화 시 콘텐츠 수출, 콘서트 재개 등으로 가파른 중국향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작사들 역시 넷플릭스나 소니 픽쳐스, 워너 브라더스 등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협업에 나섰다. 24일 상장 예정인 CJ E&M의 드라마 제작 전문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AMC, ITV와 글로벌 드라마 공동 제작을 각각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덱스터 스튜디오의 김용화 대표도 마블 창시자인 스탠 리의 제안을 받아 할리우드 작품 연출을 논의 중이다. 제작이 진행된다면 덱스터가 VFX(시각특수효과)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미주 시장은 전 세계 미디어 콘텐츠 1위 시장이다. 한국 콘텐츠의 할리우드 입성은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다. 여기에 KBS2 ‘굿닥터’를 원작으로 한 ABC ‘굿닥터’가 미국에서 시청률 1위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도 호재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최근 콘텐츠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방송 매출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반면 방송 수출은 동 기간 108.8% 증가하면서 콘텐츠 산업 내 수출 1위를 기록했다”며 “그동안 토종 콘텐츠의 중국 편중 심화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올해 상반기 국내 대다수 콘텐츠 업체들은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경험했지만 중국 외 기타 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수출 둔화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다시 부는 워너원 狂風… “연말에 신인상 주실 거죠?”

미니음반 ‘1-1=0’ 리패키지 버전 발매
타이틀 ‘뷰티풀’ 음원사이트 1위 석권
음반도 이틀 만에 26만7000장 팔려

보이그룹 워너원이 또 한번 ‘광풍’을 몰고 왔다.

워너원은 13일 첫 번째 미니음반의 리패키지 버전인 ‘1-1=0(Nothing without you)’를 발매하고 3개월여 만에 컴백했다. 데뷔 음반 활동을 통해 ‘괴물 신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이들은 리패키지 음반으로 ‘국민 보이그룹’ 반열에 오르겠다는 포부다.

보이그룹 댄스곡의 전형을 따랐던 직전 활동곡 ‘에너제틱(Energetic)’이 워너원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면, 새 음반은 자전적 성격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한층 탄탄한 구성으로 완성됐다. “하나가 되기 전 불완전했던 청춘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기획은 “데뷔 전 느낀 고민과 미래에 대한 갈망”(황민현)이라는 워너원의 실제 서사와 연결돼 ‘팬심’을 더욱 자극한다.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타이틀곡 ‘뷰티풀



(Beautiful)’은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 1위를 석권했다.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는 ‘뷰티풀’ 진입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3월 음원 차트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음반 판매량 역시 압도적인 숫자를 나타낸다. 데뷔음반 ‘1+1=0(To be one)’이 73만4000여 장의 판매고를 올린 데 이어 리패키지 음반은 발매 이틀 만에 26만7000장 이상을 팔아치우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000년대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 가운데 데뷔 음반으로 이 같은 성적을 낸 팀은 워너원이 유일하다.

“연말 시상식에서 꼭 신인상을 받고 싶다”(배진영)는 바람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워너원은 9월 열린 ‘소리바다 베스트 케이뮤직 어워즈’와 이달 15일 열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sia Artist Awards)’에서 신인상을 싹쓸이했다. 신인 그룹 가운데서는 물론이고 톱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어 다관왕 수상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일부 관계자들은 워너원의 성공이 아이돌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획사 주도의 그룹 구성이 아닌, 미디어의 자본력과 파급력이 중심이 된 제작이 더욱 빈번해지고 또한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워너원이 일으키고 있는 ‘광풍’이 팬들과 심지어 워너원 그들조차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크고 강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마녀의 법정’ 가고 ‘저글러스’
‘매드독’ 뒤에는 ‘흑기사’ 待機
KBS 드라마 상승세 이어갈까?

시청률 탄력받은 월화·수목극
종영 4회 남기고 차기작에 관심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완벽히 판갈이가 된 KBS 주중 드라마의 암흑기가 걷혔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마녀의 법정’ 첫 방송은 6.6%로 시작했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끝내 월화극 1위를 쟁취했다. 현재는 동시간대 방송되는 드라마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리수 시청률을 유지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수목극 ‘매드독’ 역시 탄력을 받은 상태다. MBC ‘병원선’이 하락세 끝에 종영하고,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국면에서 ‘매드독’의 맹추격이 눈에 띈다. 드라마 사상 최저 시청률을 기록한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의 배턴을 이어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두 드라마 모두 반환점을 돌아 종영까지 4회만을 남겨 두고 있다. 차기 주자가 이 같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먼저 ‘마녀의 법정’ 후속으로는 ‘저글러스: 비서들’이 12월 4일부터 전파를 탄다. 이 드라마는 배우 최다니엘이 전역 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안방극장 복귀작이라는 사실로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KBS2 방영 예정인 김래원 주연의 ‘흑기사’.

이 밖에도 백진희, 강혜정, 이원근이 출연을 확정했다.

‘저글러스: 비서들’의 ‘저글러스’란 저글링을 하듯 양손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 비서 군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가 하면 ‘매드독’이 종영된 후에는 ‘흑기사’가 방송된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위험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남자의 순애보를 그릴 이 드라마는 슬로베니아에서 촬영된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풍광으로 초반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맨스 연기로는 정평이 나 있는 김래원이 남자 주인공 문수호로 등장한다는 점이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그와 호흡을 맞출 정해라 역에는 신세경이 캐스팅됐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슈퍼루키' 박성현, LPGA '全冠王' 도전

타이틀 결정 최종 'CME투어' 개막
세계랭킹 1위 中 평산산과 0.02점差
경기 내용 따라 순위 역전 가능성 커
신인상 이어 올해의 선수·상금왕 노려
대회 5위까지 보너스 100만달러 받아



세계 여자골프 랭킹 1위에 올랐다가 '1주 천하'로 끝난 박성현이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65560야드)에서 개막한 LPGA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 2번홀에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주말에는 골프전문방송 JTBC골프 채널 앞에서 잠을 설쳐야 할 것 같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타이틀이 결정되는 최종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무대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개막한 LPGA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50만 달러).

타이틀 라이벌은 박성현(24·KEB하나금융그룹)과 유소연(27·메디힐), 그리고 펑산산(중국)과 렉시 톰슨(미국)이다.

신인상은 이미 박성현이 확보했다. 나머지 롤렉스 올해의 선수, 상금왕, 베어트로피(평균타수)는 일단 경기를 해봐야 한다.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누구나 우승하면 유리한 고지에 선다.

사실 세계골프랭킹 1위에 올랐다가 '1주 천하(天下)'로 끝난 박성현의 싹쓸이에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펑산산이 토토 재팬 클래식에 이어 11일 블루베이 LPGA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LPGA투어 타이틀 경쟁은 혼전 양상으로 변했다. 세계여자골프랭킹 1위도 펑산산에게 넘어갔고, 박성현은 올해의 선수 포인트 2위 자리도 펑산산에게 내줬다. 하지만 세계랭킹이나 올해의 선수 1~3위 사이의 점수 차이가 박빙이어서 이번 대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올해의 선수와 세계랭킹 1위, 상금왕과 베어트로피(평균타수)의 주인공도 바뀔 수 있다.

세계랭킹에서는 박성현이 펑산산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펑산산의 랭킹 포인트는 8.46점으로 박성현의 8.44점과 차이가 0.02점밖에 안 되고 19주 동안 세계랭킹 1위였다가 3위로 내려간 유소연도 8.43점으로 펑산산과는 0.03점, 박성현과는 0.01점 차로 미미하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대회 우승자에게 30점, 2위 12점, 3위 9점을 주며 4위부터 10위까지는 7점부터 1점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1위 유소연은 162점, 펑산산은 159점, 박성현은 157점, 톰슨은 147점으로 3~15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금랭킹에서는 200만 달러를 넘긴 박성현(226만2472달러)이 1위인 가운데 유소연(196만4425달러)이 2위를 달리고 있다.

평균타수는 톰슨이 69.147타로 1위, 박성현이 69.259타로 2위, 전인지(23)가 69.269타로 3위에 올라 있다.

박성현이 베어트로피를 받으려면 톰슨과 9타 이상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또는 박성현이 톰슨보다 10타 이상 더 좋은 점수를 낼 경우에 톰슨이 합계 10언더파 또는 그보다 나쁜 성적을 기록해야 한다.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걸린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도 관심거리다. 이는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다. 이번 주 경기는 사용되던 포인트는 리셋된다. 순위에 따라 점수가 다시 배정된다. 따라서 선수들은 다시 배정받아 플레이를 하게 된다. 이번 대회 순위에 따른 포인트와 합산해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브의 챔피언이 탄생한다.

포인트 구조상 1~5위까지의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10위까지의 선수들도 우승을 하면 상위 선수들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계산상으로는 포인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톰슨이 5000점으로 1위, 박성현이 4750점으로 2위, 펑산산 4500점, 유소연 4250점, 브룩 헨더슨 4000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고진영(22·하이트진로), 장하나(25·비씨카드), 리디아 고(뉴질랜드), 아리야·모리야 주타누간(태국) 자매 , 지난해 우승자 찰리 헐(잉글랜드) 등도 출전해 우승도전에 나선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다운스윙時 몸쪽에 양팔 붙어 있어야



김수현의 fun한 골프레슨

많은 골퍼들이 다운스윙 동작을 할 때, 회전을 하려고 하체만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의 움직임은 생각하지 않고 스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체의 움직임만 신경을 쓰다 보면 잘못된 동작의 모양과 같이 다운스윙 때 양쪽 팔이 떨어져 있고 백스윙 톱에서 다운스윙이 바로 시작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는 클럽이 몸에서 멀어져 아웃 투 인(밖에서 안쪽으로) 스윙을 하게 되고 팔과 몸의 조화가 되지 않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다운스윙 동작을 할 때 하체의 움직임만 신경쓰면 오른쪽 모습과 같이 양쪽 팔이 떨어져 백스윙톱에서 다운스윙을 바로 시작하게 된다. 이는 '아웃 투 인' 스윙을 하게 되고 팔과 몸의 조화가 되지 않아 균형이 맞지 않다.

지나친 분리 동작은 오히려 힘 전달이 되지 않아 비거리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운스윙은 하체만 돌리면서 스윙하려는 것이 아닌, 팔의 움직임과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즉, 스윙 내내 양팔이 몸 쪽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스윙 톱 위치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팔은 허리 높이까지 수직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팔은 내려주고 하체는 회전하는 두 가지의 동작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올바른 동작의 스윙과 같이 양쪽 팔이 몸에 붙어 있고 팔의 위치 또한 위가 아닌 허리 높이만큼 손의 위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운스윙 동작이 되어야 힘을 잃지 않고 볼에 힘 전달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배꼽 앞을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유사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올바른 다운스윙 동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구분동작으로 연습을 해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백스윙 톱에서 양쪽 팔을 허리 높이까지 수직으로 내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클럽 샤프트를 스탠스 라인과 수평으로 맞춰준 후 하체 턴을 하면 클럽 헤드가 볼을 정확히 일직선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동작으로 몇 번 반복 동작을 한 후, 스윙스피드를 점점 빠르게 하여 풀스윙 때에도 팔과 하체가 조화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하면 간결하면서도 벗어나지 않는 스윙이 됩니다.

네이버 1분 골프레슨 교습가

라운딩 중 걷기, 골다공증 예방에 最高



조보영의 골프와 척추건강

막바지에 접어든 가을 라운딩. 요즈음 필드에서는 울긋불긋한 단풍만큼이나 날씬하고 화려한 옷 매무새를 자랑하는 여성 골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골프 연령이 젊어지면서 20~30대 여성 골퍼들이 남다른 패션 감각과 몸매 자부심을 한껏 과시하기에 골프장만큼 자유롭고 좋은 곳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가느다란 허리에서 어떻게 골프스윙이 나오는지 허리를 치료하는 의사의 시각에서 의아한 생각도 든다.

한때 개미허리 열풍이 불면서 많은 여성들이 잘록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 대열에 뛰어들었다. 몸이 날씬하고 허리가 가늘어도 골프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몸매를 위해 급격히 살을 빼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칼슘과 같은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고 카페인, 알코올의 과다섭취, 호르몬의 변화까지 겹치면 골밀도가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이 진행될 때 가장 큰 문제는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점이다. 사소한 골프 스윙만으로도 골절이 될 수 있고 방심하다가 넘어지거나 기침을 하다가도 골절이 일어난다. 허리나 관절에 예기치 않은 부상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그 위험은 중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 척추압박골절과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중년 이후 골다공증을 피하려면 20~30대에 충분한 골밀도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이어트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우선 젊을 때부터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조류나 콩, 칼슘이 많은 치즈, 우유, 뼈째 먹을 수 있는 멸치는 적절한 칼슘을 섭취하면서도 몸매를 유지하기에 좋은 음식들이다. 골밀도가 낮거나 평소 유제품 섭취가 적은 경우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짠 음식과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배설을 늘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프를 즐기는 여성들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만큼 식이요법과 더불어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걷기, 등산, 달리기, 헬스, 춤과 같은 체중부하운동은 여성들의 뼈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18홀 라운딩을 도는 동안 6~7㎞만 걸어도 그 운동 효과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 어떤 연구에서는 캐디 직업군이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보다 밀도가 높은 뼈와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니 골퍼들의 입장에서 푹신한 잔디 위를 열심히 걷는 것만큼 유익한 골다공증 예방 운동은 없을 것 같다. 또한 급격히 다이어트를 했거나 골다공증 판정을 받은 경우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뼈의 양 감소 또는 변화를 검사받아야 한다.

11월 골프는 바람이 차고 산간 지역은 잔디 위로 살짝 서리도 내려앉는다. 평소 골밀도가 낮은 골퍼들은 잔뜩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삐끗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악천후 조건에서는 라운드를 하지 않도록 한다. 쿠션감이 좋은 골프화를 착용하며, 과도한 체중이동과 회전을 피하고 3/4 또는 1/2 스윙으로 심플하게 골프를 즐기는 것도 좋은 요령이다.

연세바른병원 원장

툭 치면 '쏙'… 이븐롤 '퍼터' 눈에 띄네

볼 맞는 순간 공간 충격 완화
'ER1, 2, 5, 6R' 취향 따라 주문

대기만 해도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 그린에서의 골퍼. 하지만 가장 쉬울 것 같은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퍼터다. 그런데 미국 이븐롤(evnroll)사가 홀을 잘 찾아가는 퍼터를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퍼터는 라이프사의 투바(Two Bar) 퍼터 제작자로 잘 알려진 게린 라이프의 작품이다. 그는 페이스 그루브 기술을 디자인한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가 디자인한 모델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100개 대회 이상 우승한 퍼터로 40여 종에 이른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ER1, ER2, ER5, ER6R〈사진〉의 4가지 시리즈로 골퍼들의 취향에 따른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한 퍼터의 가장 큰 비밀은 퍼터 페이스다. 이 페이스는 그루브가 가로질러 밀집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어느 부분에 맞아도 부드럽게 굴러갈 뿐만 아니라 볼의 직진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밀집하게 판 그루브는 스트로크시 그루폭을 중앙과 사이드를 달리 디자인해 탁월한 롤을 생성한다. 이는 볼이 맞는 순간 페이스와 공간이 충격을 완화시켜줘 접촉면이 최대한 적어진다. 임팩트 후 일정 거리를 지면에서 뜬 상태로 나가는 스키드 현상이 일어나는 일반 퍼터와 달리 볼이 스트로크 순간부터 지면에 달라붙어 구르게 된다. 이븐롤 퍼터는 로봇테스트 결과 그루브가 없는 일반 퍼터와 달리 일정하고 정확하게 특정 지점에 도달한다.

KJ골프(회장 장춘섭·www.evnroll.co.kr·1588-2571)가 수입·총판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8·2 부동산 대책 이후, 남은 **단 하나의 재테크 전략**
대한민국 핫한 투자처, 땅 부자들의 비밀 전격 공개!

땅을 사기 전에
알 았 더 라 면
좋았을 것들

- 유망한 대한민국 땅 투자처
- 실전 투자에서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
-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 수익을 내는 방법
- 심리 분석을 통한 땅 투자 방법
- 기획부동산에서 사기 당하지 않고, 기획부동산에 땅을 파는 법



화제의 신간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이일구 지음 | 260쪽 | 16,000원



김이설·조남주·최정화(왼쪽부터) 작가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다산카페에서 열린 페미니즘 소설 '현남 오빠에게'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과 남성…

서로의 아픔 쓰다듬는 기회 됐으면



현남 오빠에게
조남주 외 6인
/ 다산책방
/ 1만4000원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등 女작가 7인
페미니즘 소설집 '현남 오빠에게' 出刊
"남자들과 싸우자는 의미가 아냐…
차별과 폭력 대신 위로와 공감으로"

"소설집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묶였지만, 남자들과 싸우자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획을 받아들인 작가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젊은 여성 작가 7인이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을 묶은 소설집 '현남 오빠에게'를 출간했다. 페미니즘이란 계급, 인종, 종족, 능력, 성적 지향 혹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문화적 성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의제들을 의미한다. 곧 다양한 부분에서 비(非)차별과 성평등을 옹호한다.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 페미니즘 작가가 된 조남주를 비롯해 최은영, 김이설, 최정화, 손보미, 구병모, 김성중 등 7명의 작가는 '현남 오빠에게' 속 각자의 단편소설을 통해 이 시대 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13일 마포구 서교동 다산북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작가는 "전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취재작가 일을 할 때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만난 피해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고 경제력이 있는데도 결혼 초기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겪었더라"면서 단편소설 '현남 오빠에게'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남 오빠에게'는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이 낯설기만 했던 스무 살,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 준 남자친구 현남 오빠에게 의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가르치려드는 그에게 문득문득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나'가 여성으로서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과 꺼림칙함을 폭력이라고 느끼기까지의 긴 시간을 돌이켜보고 용기 내 고백하는 생생한 심리 소설이자 서늘한 이별 편지다.

조 작가는 '82년생 김지영'을 시작으로 이번 '현남 오빠에게'까지 소설을 통해 페미니즘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데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남성 독자들의 리뷰를 보면서 남성들도 여성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의지가 있는데 그 기회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요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인터넷 문화와 유튜브 등에서 여성 혐오 콘텐츠를 많이 접하는데 그보다 윗세대인 삼촌, 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남자아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들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희망적"이라며 "그동안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런 인지가 있으면 그 이후 고민하게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설집에서 단편소설 '경년(更年)'을 쓴 김이설 작가는 "내 소설 '경년'은 '갱년기'의 '갱년(更年)'과 한자가 같다. 사춘기 자녀를 바라보는 40대 여성이 이전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며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작가는 "이 책이 남자들과 싸우자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소설을 읽으며 서로 날 세우기보단 서로의 아픔을 가만히 쓰다듬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단편소설 '모든 것을 제자리에'를 쓴 최정화 작가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는 페미니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순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내 모습이 담긴 작품"이라며 "뜨거운 화두를 다룬 소설집인 만큼 설레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최 작가는 "두려움을 이기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이 소설을 썼다"며 페미니즘 소설을 쓰는 적잖은 부담감도 내비쳤다.

한편 7인의 여성 작가는 이번 소설집 '현남 오빠에게'의 인세 일부를 여성인권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그들이 그린 일곱 편의 이야기가 단지 '이야기'에 머물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대한민국 자본권력을 고발합니다

불법·정경유착으로 얼룩진 한국 근대사
문제점 신랄하게 비판하고 해법 제시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안치용
/내일을여는책
/1만6000원

"정권은 재벌을 만들고, 재벌은 권력을 지배한다.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재벌의 자본권력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치용 '지속가능저널' 발행인 겸 한국CSR연구소장은 책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를 통해 재벌이 만든 자본권력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겉보기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고, 그야말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그 성장이 비대칭·불균형 성장이고, 성장의 과실이 특정 세력인 재벌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데에는 큰 반론이 없을 것이다.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는 그런 재벌에 주목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재벌은 언제나 든든한 정권의 동반자 혹은 하수인이었다. 정권에서 요구하는 정치자금의 마르지 않는 젖줄이었고, 그 대가로 바벨탑과 같은 자본의 성채를 쌓았다.

실제로 일제강점기가 끝나자마자 재빨리 '친일'에서 '친미'로 옷을 갈아입은 식민지 부역자들은, 이른바 적산불하(敵産拂下) 과정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고,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오히려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았다. 이어 5·16 세력과 손잡고 '반공'의 기치 아래 군사정권의 든든한 뒷배가 됨으로써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권력이 바뀌었지만 재벌은 차근차근 자신들만의 성채를 구축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본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났고 오히려 정권을 창출하고 조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바야흐로 자본권력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불법과 탈법과 정경유착으로 부와 권력을 쌓아올린 자본권력을 마피아보다 더 사악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자본권력은 사법적 심판을 벗어나 있고 나아가 사법을 포함한 국가와 사회 권력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저자는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를 통해 재벌 중심이었던 한국경제의 근대사를 이야기하면서 긍정적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범죄자본주의'를 언급하며 "자본권력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본주의'를 해제하고 한국 자본주의를 전면 재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새로 나온 책



푼돈아 고마워
구채희/ 원앤원북스/
1만5000원

이 책에는 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현명하게 쓰면서 돈 되는 금융지식을 나의 것으로 체득하는 노하우가 담겼다. 또 묵혀 둔 재능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10만 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하는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푼돈아 고마워'는 일상의 '작은 사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재테크 책이다.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방법부터 알아두면 도움이 될 재테크 상식까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다.

저자인 구채희 씨는 이 책을 통해 더 이상 투자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당장 단돈 10만 원으로도 수익률 높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영화 크라우드펀딩', '세관공매', 'P2P대출', '외화예금', '국공채 채권', '금 통장' 등 쉽고 재미있게 투자하는 방법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현실의 경제학
스티븐 S. 코언 외 1인/
정시몬 옮김/ 부키/
1만5000원

우리 앞에 놓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는 것, 즉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되새기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사에 정통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영국의 식민지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난 미국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 특히 이 책은 미국 경제를 조명하면서 경제를 원활하게 운용했던 사례뿐만 아니라 결정적 실패 사례에도 주목한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인 미국조차 최근까지 시장의 힘에만 경제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고, 그랬기에 경제 성장에 성공했음을 강조한다.

'탈 석탄' '탈 원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NERGY FOR THE FUTURE
에너지의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반 스크레이즈·고든 매케른 외 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수 | 384 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에너지 왜 변화 못하나?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하다.

황사와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던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문의 : 02-3156-382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PLATFORM REVOLUTION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포브스』『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올해의 비즈니스 필독서
'800CEO리드' 베스트셀러



마셜 밴 앨스타인 외 2인 지음
512쪽 | 부키 | 값 22,000원

정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들이 저술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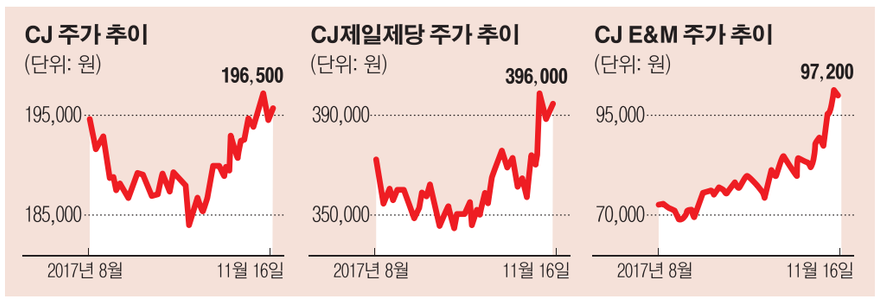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기존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게끔 영감을 주는 안내서. _ 짐 하게만 스나베, 전 SAP 최고경영자
완벽하다. 그리고 도발적이다. _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에게 특별히 취약한 플랫폼적 사고를 일깨워 주고 빅데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_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문의 : 02-3142-0484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實績' 날개 달고 復活한 CJ그룹주

사드 우려 잦아들며 투자심리 개선
CJ제일제당 筆頭 상장 자회사들
3분기 총매출 16%·영업익 12.2%↑
지주사 CJ 실적도 추정치 웃돌아
'호실적' 올리브네트웍스, 上場說도



한때 하향 곡선을 그렸던 CJ그룹주의 주가가 주요 계열사의 '꽃실적'에 살아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우려가 잦아들며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일부터 현재까지 CJ, CJ제일제당, CJ E&M의 주가는 각각 5.1%, 10.0%, 16.1% 상승했다. CJ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4318억 원, 지배주주순이익은 115.1% 증가한 2152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시장 추정치를 웃돈 호실적이다.

양호한 영업이익은 주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일조했다. CJ그룹의 상장 자회사(CJ제일제당·CJ프레시웨이·CJ E&M·CJ CGV·CJ오쇼핑)의 3분기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6조5256억 원, 합산 영업이익은 12.2% 늘어난 3782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3분기 영업이익(2693억 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전분기보다 63.8% 증가하면서 지주회사인 CJ의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실적 개선은 시가총액 증가로 이어졌다. 상장 5개 자회사의 시가총액은 연초 대비 16.6% 늘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CJ제일제당·CJ CGV·CJ E&M 3사의 시가총액은 연초 대비 각각 8.7%, 8.6%, 35.7% 증가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사드 갈등 해소 조짐과 함께 상장 자회사의 실적과 시총이 동반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고성장도 두드러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한 5038억 원을 기록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격적인 출점 전략으로 현재 1011개의 점포를 확보했다. 헬스앤뷰티스토어(H&B) 점유율은 64.8%에 달한다. 3분기 누적기준 순이익은 767억 원으로, 연간 1000억 원의 순이익 달성이 예상된다.

이처럼 몸집을 불리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상장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17.97%) 씨를 비롯해 대주주 일가가 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선호 씨 등 대주주 일가가 상장시 구주 매출을 통해 보유 지분율을 낮추고, 승계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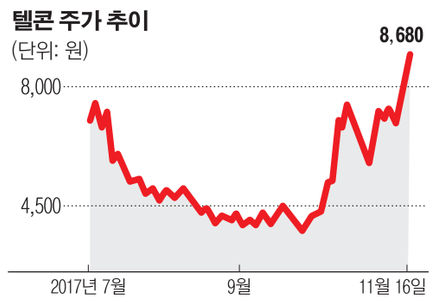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잦아든 사드 우려로 내수 관련주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CJ제일제당의 실적 개선, 올리브네트웍스의 고성장세가 지속되며 CJ그룹주 주가는 반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 우려 해소 이후 CJ CGV, CJ E&M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CJ의 주가도 동행할 것"이라며 "주가의 단기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미정 기자 mjk@



주가 뜨자 持分 내다 판 '텔콘' 최대주주

바이오 호재·비보존 지분 확대에 '급등'
이두현 대표 등 100만주 매도 차익 실현



코스닥업체 텔콘의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자들이 바이오 호재를 타고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지분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두현 텔콘 대표이사는 11월 들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40만 주를 평균 단가 7200원대에 매도했다. 이 회사 이창현 이사 역시 보유 중인 텔콘 주식 33만 주를 장내 평균단가 7359원에 매각했다.

이두현 대표와 이창현 이사는 텔콘 계열사인 비보존의 대표와 부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두현 대표와 특수관계인으로 엮여 있는 이태희·이유진·김진숙 씨도 각각 7만 주, 14만8400주, 10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들은 11월 8일부터 집중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텔콘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는 비보존의 모회사다. 그동안 텔콘은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왔다. 특히 최근 텔콘이 비보존의 지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 취득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됐다. 이달 14일 비보존의 주식 75만 주를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 취득 후 텔콘의 비보존 지분율은 36.41%(477만1015주)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후보 물질 '오피란제린(VVZ-149)'에 대한 기대감이 텔콘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비보존은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피란제린(VVZ-14) 적응증 확장을 위한 국내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에서 임상 2b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임상 2a상 결과가 국내 임상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만큼 미국 임상 2b상도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시종 기자 ssj@

삼성운용, 두 번째 '코스피200 ETF' 雜音 속 상장

주가·배당 포함 지수변동 추적 'TR' 방식
미래에셋은 "상품 중복 위반" 문제 제기

일부 운용사가 강하게 반발했던 '토탈 리턴(TR·Total Retune)' 방식의 코스피200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주부터 본격 판매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1일 삼성자산운용이 새롭게 선보인 TR방식 코스피200 ETF를 증시에 상장한다. 상품명은 'KODEX200 TR ETF'로 최종 결정됐다.

김승욱 ETF운용팀 VP가 운용역을 맡으며 보유기간 과세방식이 적용된다. 총보수는 0.1%로 운용보수(0.79%)와 신탁보수(0.01%), 기타보수 등을 포함해 산정됐다.

TR지수는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배당까지 포함해 지수 변화를 추적하며 미국 등 해외 ETF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들은 시장 출범 초기부터 프라이스 리턴(PR·Price Return)지수를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이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ODEX200 ETF'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 TR ETF'를 신규 출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두 상품은 사실상 동일 상품으로, 기초지수 하나에 한 상품만 만들 수 있는 원칙을 깬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ETF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 첫 제출 당시 0.05% 수준의 업계 최저의 총보수를 제시한 것도 저가 경쟁을 통한 몸집 불리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ETF 승인·심사 주체인 한국거래소 측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코스피200 TR지수 개발은 2년 전 완료됐으나, 실시간 가격조회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삼성 측 요청으로 해당 부분만 보완돼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상당수 자산운용사는 TR방식의 도입이 ETF 저변 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운용사 ETF팀장은 "저보수 방식의 새로운 코덱스 200 ETF를 내놓은 것은 삼성자산운용의 전략적인 판단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오히려 이번 논쟁이 ETF시장의 법적 토대를 탄탄히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시장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투자자들 코스닥 行列에 코스피 '숨 고르기'

이주의 수급동향

외국인 953억 순매수에도 거래량 줄며 내림세

이번주(11월 13~16일)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에도 숨 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16일 코스피는 2534.79로 마감해 지난 10일(2542.95) 대비 8.16포인트(0.32%)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3일 종가기준으로 사상 최고치(2557.97)를 기록한 이후, 2거래일(8일·16일)을 제외하고 줄곧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외국인은 95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도 123억 원 순매수했으나, 기관은 홀로 171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면서 코스피 투자자별 순매수 및 순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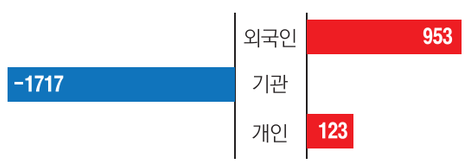
이번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던 종목은 넷마블게임즈였다. 외국인은 이번주 들어 넷마블게임즈 주식을 1283억 원어치 사들였다. 넷마블게임즈는 '리니지2: 레볼루션' 흥행 기대감에 13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엔씨소프트(987억 원) △LG화학(778억 원) △한미약품(467억 원) △SK하이닉스(441억 원) △카카오(398억 원) △덴티움(295억 원) △고려아연(294억 원) △현대중공업(270억 원) △LG(237억 원) 순이었다.

반면, 기관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순매도세를 보였다.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G화학으로 786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어 롯데케미칼(-709억 원), 포스코(-595억 원), SK이노베이션(-526억 원), 현대로보틱스(-406억 원) 순으로 덜어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	넷마블게임즈	1283	6	카카오	398
2	엔씨소프트	987	7	덴티움	295
3	LG화학	778	8	고려아연	294
4	한미약품	467	9	현대중공업	270
5	SK하이닉스	441	10	LG	237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단위: 억 원)



16일 코스피가 상승세로 마감했으나, 일각에서는 당분간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00선을 돌파한 이후 차익실현 압력이 강해진데다 3분기 어닝시즌이 끝나면서 당장 지수를 견인할 모멘텀이 없다"면서 "코스피 숨 고르기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무전해 공법 '극동박' 양산 공정 개발 완료
와이엠티 "일본 진출"

자동차 열선·회로기판 등 활용

PCB 하이엔드 화학소재 전문기업 와이엠티(YMT)가 극동박 양산 공정 개발을 끝내고, 일본 진출을 추진한다.

17일 와이엠티는 세계 최초로 무전해 공법을 이용해 개발한 극동박(Ultra-thin Copper Foil)의 양산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제품을 갖춘 것이라며 현재 일본 기업과 공급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극동박은 금속판에 얇은 동막을 입힌 것으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FPCB의 기초 소재로 사용)', 전자파 차폐(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필름, 자동차 열선소재, 패키지회로기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와이엠티는 기존 판매 제품인 화학소재를 넘어 추가적인 사업 분야에서의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열선 활용성을 토대로 완성차 부품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직접 개발한 소재를 유수 PCB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술 강소기업이다. 일찍이 일본과 독일이 점유하고 있던 PCB 메인공정 화학소재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와이엠티는 PCB 부품 부식을 방지하는 표면처리 화학소재를 주력 생산하고 있다. 특히, FPCB 및 RF PCB용 금도금 표면처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기를 비롯한 국내 유수 PCB 제조사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 등 글로벌 PCB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하이엔드 전자기기에 주로 탑재되고 있다.

와이엠티는 소형 OLED 시장 개화에 따른 본격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애플이 OLED 방식을 채택하면서 RF PCB 시장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향 OLED를 공급하면서 인터플렉스, 삼성전기, 비에이치, 영풍전자 등의 삼성디스플레이 벤더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와이엠티의 주요 고객사다.

한편 와이엠티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으로 전년 대비 82.4% 증가한 59억 원을 기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반도체 장비 전문 '메카로', 내달 6일 코스닥 入城
"IT 핵심부품 소재기업 도약"

주력제품 전구체·히터블록 경기 타지 않고 수요 꾸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06억 상장으로 최대 600억 조달



반도체 장비 부품 및 화학 소재 전문기업 메카로가 다음달 코스닥 상장을 통해 IT 핵심 부품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이재정<사진> 메카로 대표는 "열관리 기술과 박막물질 개발 및 증착기술, 메카로만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인접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IT핵심 부품 소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0년 설립된 메카로는 반도체 장비 관련 부품과 화학 소재의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전구체와, 실리콘 웨이퍼에 열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하는 부품인 히터블록이 있다. 전구체 매출은 약 588억 원으로 전체의 78.9%, 히터블록은 약 169억 원으로 21.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메카로의 주력 제품인 전구체와 히터블록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모품으로,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한다" 며 "지난 17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높은 기술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디바이스용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까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메카로는 자체 기술로 지르코늄(Zr) 계열 전구체(ZM40)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며 설계, 박막 증착, 합성 정제 및 분석 등 관련 전구체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21나노 이하 디바이스 선폭에 적용되는 소재로 디램(DRAM) 필수 물질이다.

국산화에 성공한 히터블록 사업은 ALD(원자층 증착법)·CVD(화학 기상 증착법) 공정에 적합한 히터블록 설계 기술과 표면처리 방법, 금속히터 제조법, 관련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적합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메카로는 메탈 히터블록에서는 국내 1위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전구체와 히터블록의 핵심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분야에도 도전한다. 현재 젬 포일(GEM Foil) 및 관련 응용 제품인 방사선 검출기 키트와 구리·인듐·갈륨·셀레늄(CIGS, CuInGaSe2) 박막형 태양전지 등의 신규 품목도 개발 중이다. 추후 의료용, 원자력용 등 산업용 검출기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메카로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액 757억1600만 원, 영업이익 306억4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33억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은 수치다.

메카로는 이번 공모로 총 500억~6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자금은 생산력 증가를 위한 공장 신축, 신규 전구체 및 젬 포일, CIGS 박막형 태양전지 등 연구개발, 운영자금 등에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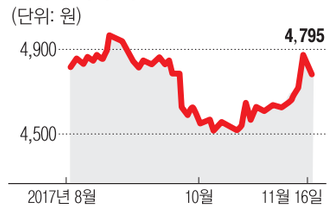
공모 주식수는 총 200만 주로, 주당 공모희망밴드는 2만5000~3만 원이다. 21~22일 수요예측을 거쳐 27~28일 청약을 진행하고, 내달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地震 공포 잠재우는 제진설계
희림, 이란·아제르바이잔 수주

내진 7.5 건축물 기술 보유

희림이 댐프를 적용한 제진구조를 적용해 규모 7.5 강진에도 끄떡없는 건출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강진지역에서 잇따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 주가 추이
(단위: 원)



17일 희림 관계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상, 용도에 따라 최적화된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내진구조를 비롯해 상부에 지진응력을 저감하는 댐퍼(완충시설)를 적용한 제진구조를 적용하여 규모 7.5의 강진에도 끄떡없는 건축물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와 CM을 수행한 아제르바이젠 올림픽스타디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의 랜드마크인 수자원공사 사옥을 비롯해 최근에는 이란 아틀라스 파스(Atlas Pars)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덧붙였다.

희림이 강진지역에서 잇따른 수주를 한 배경에는 디자인 능력과 더불어 내진설계 기술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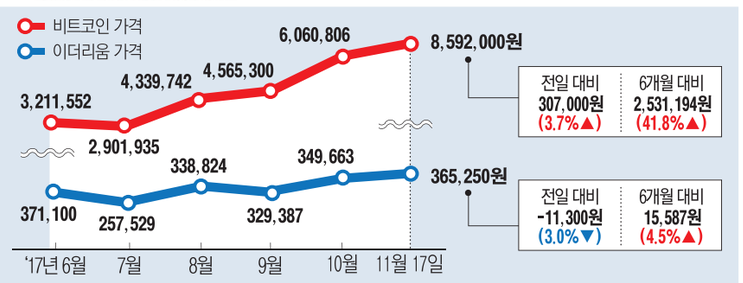
이란의 경우,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지진 단층지대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건물이 많아 규모 6.0 이상의 지진에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아틀라스 파스는 지진 규모 7.5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으며 고층부 타워에는 내진구조와 제진구조를 병용하여 설계됐다.

삼영엠텍, 대창스틸, 코리아에스이 등과 함께 지진 관련주로도 꼽히는 희림은 강진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지진 하중을 견뎌낸 건축물에 대한 통찰과 관찰을 통해 더욱 실제적인 검증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 및 디자인의 이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내진설계는 설계단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시공단계까지 수반되어야 하는데, 기획단계부터 설계와 CM을 동시에 수행하는 희림만의 차별화된 토털 건축서비스인 DCM(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서비스는 국내 및 해외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11월 17일, 08:00, KST)



	전일 대비	6개월 대비
8,592,000원	307,000원 (3.7%▲)	2,531,194원 (41.8%▲)
365,250원	-11,300원 (3.0%▼)	15,587원 (4.5%▲)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대시	456,250원	-21,250원 (4.5%▼)	비트코인캐시	1,022,000원	-356,000원 (25.8%▼)
라이트코인	74,450원	2,450원 (3.4%▲)	모네로	131,510원	-5,690원 (4.1%▼)
이더리움 클래식	18,845원	1,150원 (-3.1%▲)	제트캐시	332,000원	-1,550원 (0.5%▼)
리플	254원	17원 (7.2%▲)	퀀텀	14,230원	1,190원 (9.1%▲)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팜스웰바이오 관계사〉

큐브바이오 '소변으로 癌 진단 키트' 10개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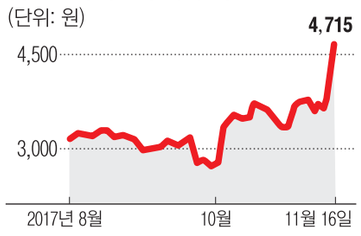
췌장암·대장암 등 조기진단

팜스웰바이오 관계사 큐브바이오의 소변 암 진단키트가 해외 10개국의 수출 인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췌장암 및 대장암, 위암, 폐암 등을 소변을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전 세계 유일 제품이다. 내년 상반기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팜스웰바이오 관계자는 "소변 암 진단키트의 중국과 인도, 필리핀 등 10개국 수출 인허가가 완료됐다"면서 "현재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각국 파트너들의 판매 승인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팜스웰바이오는 의약품원료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1987년 설립됐다.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암제 원료인 독시플루리딘 및 소화기계 약물인 알리벤돌 등의 판매다. 의약 연구 개발업체인 큐브바이오와 의약품 유통회사 저스트나이스코리아를 관계사로 두고 있다. 이번에 해외 진출을 노리는 제품은 큐브바이오의 소변 암 진단 키트다. 암세포 발현시 암 환자의 소변 내 특정 대사체의 증감 현상을 확인해 췌장암,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등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팜스웰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 임상 결과 췌장암의 민감도는 86%, 특이도 90%의 정확도가 확인됐다. 혈액을 활용한 암 진단키트 특이도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소량의 소변으로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신속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 회사는 7월 검진센터인 KMP코퍼레이션에 암 진단기기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KMP코퍼레이션은 서울아산병원의 박광민 교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검진센터로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포진해 GE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해 프리미엄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젊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접목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www.kepco.co.kr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